

2019년 겨울



# 누사람 노들마리 리



(사)노란들판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예비사회적기업「들다방」  
 노들장애학궁리소

\* 표지그림  
김경남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노란들판의 일상, 어느날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 제121호 2019. 12

만든곳 (사)노란들판·노들장애인아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에비사회적기업「들다방」·노들장애학공리소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서기현 정우영 조상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 기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

- 03 행진 앞으로~ 하는 거야~ \* 이현아
- 06 [장판 핫이슈] "진짜 '사장', '건물주' 기획재정부 나와라!" \* 조현수
- 09 [고병권의 비마이너] 노들이여 끝까지 살아남으라 \* 고병권
- 13 결불 찌러 오시라 \* 최경미
- 16 퍼레이드진진진 \* 다이애나랩
- 18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참가 후기 \* 정중현
- 21 그래서 우리는..... \* 장선정
- 23 [형님 한 말씀] 후원자님께 드립니다. \* 김명학
- 24 이 사람들 정말 문턱이 체질이다! '백일장이 체질' 심사 소감 \* 박정수
- 27 2019 노들 백일장 "백일장이 체질" 수상작 6편 대공개

---

- 34 [교단일기] 바야흐로 대세는 BTS가 아니라 NTS대! \* 야마가타 트윈스터
- 37 전국 피플퍼스트 참가기 \* 박승이
- 41 처음 가본 노들야학 모꼬지가 좋았습니다 \* 김상현
- 46 [노들야 안녕] 사람이 사람에게 \* 가을
- 48 [노들야 안녕] 탈시설하고, 노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 최원진
- 49 [노들야 안녕] 노들에서 발버둥치는 중 \* 박상희
- 50 [노들야 안녕] 저는 들다방 바리스타 윤준환입니다 \* 윤준환
- 51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매일 새롭게, 함께 보내는 8시간 \* 임해정
- 52 전동휠체어 처방전을 받기 위한 질문! 100 배기 7은? \* 김상희
- 56 [보급보급 홍보상담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 \* 서기현

---

- 58 열사와 지속가능한 운동 \* 박상민
- 59 [노들 책꽂이] <장애학의 도전>과 함께 장애학에 도전해 보자! \* 허신행
- 62 <장애학의 도전> 저자에게 보내는 편지 \* 김성희
- 64 [노들은 사랑을 싣고] 아학에 파문져 지낸 20대 청춘, 이후\_박여송 인터뷰 \* 명학

---

- 69 [동네 한 바퀴] 투쟁 현장 동지들 밥 챙기는 '십시일반 밥묵차' \* 조재범

---

- 72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현장에서 자주 뵈었어요!  
록밴드 '허클베리핀' \* 명희
- 79 고마운 후원인들

## 노들바람을 여는 창

김유미 <노들바람> 편집인

노들이 궁금해진 어떤 분이 <노들바람> 과월호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소식이 완성되면 노란들판 홈페이지(nodeul.or.kr)에 <노들바람> pdf 파일을 업로드하기에, 그곳에서 찾아보시라 했습니다. 다음날 그 분은 56호와 57호 두 호 모두 2005년 7월호로 돼있던데 이것은 어찌된 일이나 저에게 물었습니다. 2005년엔 제가 노들에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책도 2019년 12월에 만든 겨울호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짧은 글을 쓰는 지금은 1월 초인데요. 2030년쯤 누군가는 비슷한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호인데 1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2019년 하반기에 야학에서 기초사회 수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학생분들은 숫자로 구분된 시간들을 어려워합니다. 12월의 12는 어렵고 29일의 29는 낯섭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 오후 5시도 바로 떠오르지 않고, 내일 11시에 만나자고 약속해 놓고 다음날 11시에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어쨌든, 어찌됐든 야학은 옵니다.

2020년 1월, 야학은 겨울방학을 맞았지만, 열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같이 야학에 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해 선발된 분들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야학을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권리옹호' 활동도 합니다. 처음으로 일을 해 보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2020년엔 그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 보고 싶습니다.

한 해, 열두 달의 시작은 겨울인데, 왜 사람들이 말하는 사계절의 순서는 봄여름가을겨울인 것일까요. 1월이 봄인 나라에서 순서를 정한 것일까. 봄을 좋아해서 일까.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획대로 살아지지 않는 삶과 비슷하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답을 찾아봅니다. <노들바람> 2019년 겨울호.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행진 앞으로~ 하는 거야~

이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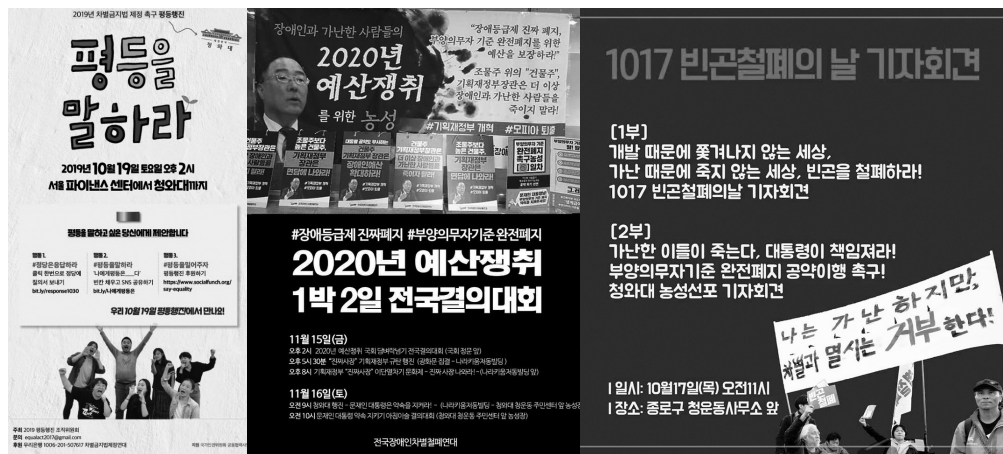
울 한해도 노들과 함께 재미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행진의 계절이기도 한 걸까.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2019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퍼레이드까지, 3주 연속 토요일마다 노들 사람들은 시내 일대를 함께 걸었다. <노들바람>의 한 편집위원님은 필자가 행진 3관왕(...)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글을 청탁하였으나, 사실 필자는 (평일 9시에 버금가는 이른 시간인) 주말 1시에 시작하는 매드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고, 행사 막바지에야 겨우 도착했다는 후문이다. (너무너무 아쉽다.) 그 아쉬움은, 현재진행형으로 치열하게 투쟁 중인 2020년 예산쟁취 1박 2일 전국결의대회의 행진 이야기로 대신할까 한다. 그런데 솔직히 글을 청탁받고 나서 이제는 큰 울림이나 기억 없이 행진을 비롯한 현장투쟁들에 참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뜨끔했더랬다. 기억도 시간도 뒤죽박죽이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독자들의 너른 양해를 바란다.

### 우리는 왜 주말마다 걸어야 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억압받는 너와 내가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더 크게,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이웃으로서 여기에 함께 살고 있다고 (싶다고) 알리기 위해서 함께 걷고, (바퀴로) 구른다. 소중한 주말에도 이렇게 매주 나와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세상은 빠르게, 많은 것이 변한 듯 보이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세상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10월 12일에 있었던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포스터에는 '나는 가난하지만 차별과 멸시는 거부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노들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등장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고 외치는 열



굴들이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열렸던 2019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에서는 가족차별, 난민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노동자 차별 등 각종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울려 퍼졌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혐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울해지기도 했다.

약 한달 뒤인 11월 16일에는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2020년 예산쟁취 1박 2일 전국결의대회가 있었는데, 무려 이틀 연달아 행진이 있었다. "진짜사장"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행진을 통해서 전달되는 비슷한 듯 다른 목소리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모두 우리 함께 살자는 외침이었을 것이다.

### 우리는 어디로 향했는가

세 행진의 코스는 흥미롭게도 대동소이했다.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는 청계천광장 북측에서 조계사를 거쳐 청와대 앞까지, 평등행진은 시청 부근에서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돌아 역시 청와대 앞까지, 예산확보 전국결의대회 2일차 아침 행진은 한 농성장이 있는 을지로 나카기움 저동빌딩에서 종로를 거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또 다른 농성장이 있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코스였다. 모두 청와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불평등과 혐오를 해결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거듭 들을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일 것이다.

평소에 전통 활체어로 시내를 거니는 일은, 그것도 단거리가 아닌 짧게는 2km, 길게는 5km 이상까지 걷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과 차들, 턱으로, 공사로, 적치물로 곳곳에 가로막혀 있는 인도를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행진을 하는 날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경찰의 과도한 보호를 받으며 시내 일대를 자유롭게 누빈다. 천천히 함께 걷는 덕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도 많다. 평소 길거리에서는 보기 힘든 휠체어들도 이날만큼은 부대를 이뤄 앞장서서 걷는다. 특히 장애인운동 행진의 경우, 격하게 반응하는 차들을 마주하고서 중간 중간 도로에서 쉬었다 가는 재미도 있다.

### 우리를 지지하지 않게 해주는 것들

여러 가지 구호와 노래, 발언 등이 긴 행진 시간 동안 지지하지 않게 해준다. 뒤쪽에서 걸을 때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끔 심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옆에 함께 걷는 사람에게, 낮은 많이 익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볼 수도 있다. 평등행진에서는 평소 행진에서 자주 들었던 투쟁가 외에 많은 노래들이 흥을 돋구었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을 개사한 <차별금지송>과 한때 내가 좋아했던 대중가요들이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H.O.T.의 <We Are the Future> 등을 반갑게 따라 불렀는데, 새삼 가사들을 곰씹어보니 좋다. 틈마다 멋지게 펼쳐지는 깃발들과 드높은 하늘, 아는 얼굴들이 어우러진 사진을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 단체사진, 그리고 뒤풀이

힘든 행진을 마치고 난 뒤에는, 끝까지 함께 한 사람

들과 사이사이 얼굴을 내밀고 단체사진을 찍는 일이 마지막 필수 코스이다. 아니, 필수 코스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뒤풀이. 주로 노들야학 사람들과 뒤풀이를 하게 되는데,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 뒤에는 근처 부대찌개 집에서 밥과 술을 먹고, 당시 시청 농성장을 노들야학이 사수하는 날이라 야간 지킴이들을 위한 지지방문을 가서 커피를 나눠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평등행진과 1박 2일 예산확보 투쟁 이후에는 무려 노들야학 교사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행진 후에 회의만 해도 지칠 법도 한데, 여운이 짙게 남아있지(?) 그런 날에는 뒤풀이가 더 길게 이어졌던 것 같다.

도통 뭘 써야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던 내게 글을 청탁했던 편집위원님이 들국화의 노래 <행진>을 언급한 것에 힌트를 얻는다. 우리의 과거는 어둡고 힘이 들었지만, 우리의 미래 역시 항상 밝을 수 없고 때로는 힘이 들겠지만, 함께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은 다행이라는, 식상(...) 하지만 그래서 잊기 쉬운 생각을 다시 해본다.





[장판 핫이슈]

## 나라키움저동빌딩 & 청와대 농성 이야기

“진짜 ‘사장’, ‘건물주’  
기획재정부 나와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획재정부 개혁!

조현수

전장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와의 연결', '경험으로 배운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달리기와 산길 걷기를 좋아합니다.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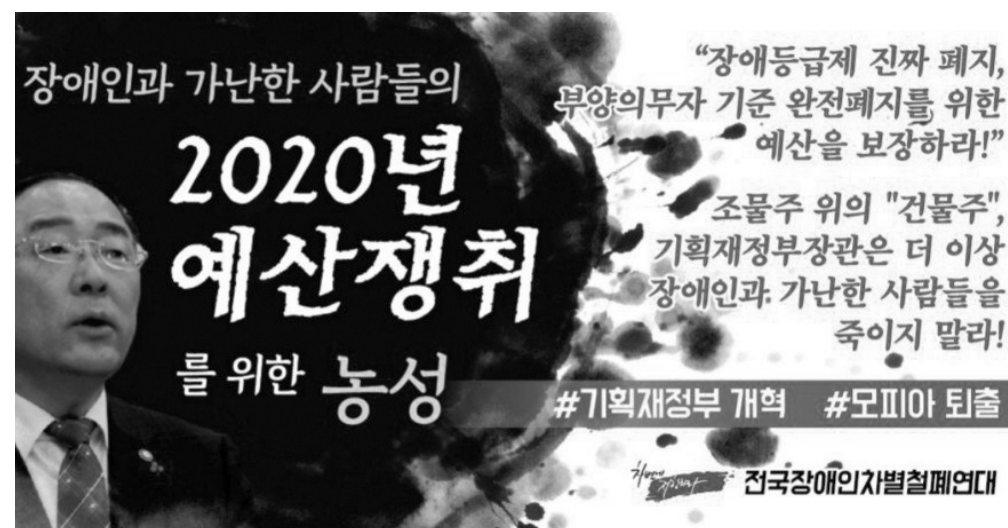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중략)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았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직접 선언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농성장 조문 등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은 우리의 요구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앞당길 것과 필요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각 민관협의체에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의 역사 그 자체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만큼의 소득 및 복지서비스 보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이 '분리·배제'되는 것이 아니

라,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책으로의 변화여야 합니다. 자신의 '장애'를, 의학적 관점의 '무능함'을 모멸적 과정을 겪으며 입증해야만 겨우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정 및 지원체계 전반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별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입니다.

한국사회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발표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이 어느덧 20년을 맞이한 이때, 새로운 10년의 첫 시작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계획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사이, 또 다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정부 스스로 강조하며 '수요자 중심 지원'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으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장애인이 서비스 중단 이후 수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던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신청 과정에서 모욕적 상황을 겪어야 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출근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농성하고,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국회 앞에서도 매년 농성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오니, 우리 모두가 마주했던 결론은 '진짜 사장'이 따로 있었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통령 공약 조차 후퇴시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제관료 집단, '모피아'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모피아'는 재정부처를 지칭하는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막강한 파워와 경제관료들의 연대감을 빚대어 부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넘사벽'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농성투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것 역시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웠는데, 2018년 추석 서울역 농성의 힘으로 만났고 2019년 326 장애인대회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함으로써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악구 한부모 모자의 죽음처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완전 폐지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래서 우리는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정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폐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2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빌딩의 이름이 ‘나라키움저동빌딩’이라는 것, 그리고 건너편에 명동성당이 위치해 있고, ‘나라키움저동빌딩’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주해있다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장애여성으로서 기초생활보장권리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앞 농성을 시작했던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며 솔하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농성했던 그 역사들 속에서, 이제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키운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막상 농성을 시작해보니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제외한 모두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 2012년부터 1842일 농성을 통해 그 시작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모피아 집단인 기획재정부를 넘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농성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연대해주시길.



[고병권의 비마이너]

## 노들이여 끝까지 살아남으라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2019년 노란들판의 꿈. 난생처음 문화제 사회라는 걸 맡았다. 예정된 순서대로 출연자들 소개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수락했는데 정말로 진땀 뻘뻘. 그나마 정숙 누님이 함께 진행을 맡아주었고, 연출자가 토크이 도움말 쪽지를 건네줘서 큰 사고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무대 장치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 10분의 짧은 시간, 평소 같으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을 메우는 데도 얼마나 큰 재능이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사회를 보면서 조금 흥미로운 시각 체험을 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그에게는 조명이 비춰졌다. 그리고 나면 그는 환하게 빛났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눈앞의 마이크도 빛났고 악기도 빛났으며 심지어는 플라스틱 의자까지도 빛났다. 모두가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음에도 조명 속에서 그들은 또 달랐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노란들판의 꿈’은 모두가 조명받는 자리라는 것, 무엇보다 ‘노들이’ 조명받는 자리라는 것 말이다.

그런데 이번 행사 중 특히나 환하게 빛났던 것이 있

다. 그것은 ‘탈시설 투쟁 10년’을 기념하는 대담을 하던 중에 나왔다. 이 대담은 2009년 본격적인 탈시설 투쟁의 봉화를 올렸던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탈시설 투쟁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담이 열린 ‘이곳’은 십 년 전 여덟 명의 장애인이 농성장을 차린 ‘그곳’이기도 해서 감동이 더 했다. ‘마로니에 8인’ 중 한 사람인 동림 형에게 왜 여기 농성장을 차렸느냐고 묻자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 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여태까지 잘 알고 있던 곳이 낯선 곳으로 돌변했다고 할까. 도대체 노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대담 중에 소개되었지만 올해도 한 사람의 장애인이 노들을 찾아왔다.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가 쓰러진 후 혼자 남겨진 중증발달장애인 문기두 님. 그에 대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 말고는 살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시설 아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서 그는 친척의 손을 잡고 노들에 왔다.

십 년 전의 여덟 사람과 십 년 후의 한 사람. 그들은 노들이 있었으므로 노들에 왔다. 둘의 이유는 달랐다.





십 년 전의 사람들은 시설에서 나오려고 했고, 십 년 후의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둘이 찾는 길은 똑같은 길이였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는 길이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들에 왔다. 그러나 노들에는 해법이 없다. 노들에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중증장애인 한 사람이 사비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노들은 단 한 사람의 중증장애인을 건사할 비용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매번 일어나는 일이 '비상사태'고, 매번 만드는 것이 '대책위원회'다. 비상! 비상! 십 년 전과 십 년 후가 똑같다. 문제를 든 손님들은 초대 없이 닥쳐오고, 노들은 미리 말려둔 곳감 같은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도대체 노들은 뭐하는 곳인가. 여

기 노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6년 전 노들야학 20주년을 축하하는 강연 자리에서 나는 노들의 정체를 물었던 적이 있다. 이 이상한 학교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 과거 자료들을 읽고 나서 나는 이곳이 단순한 교육단체도 운동단체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굳이 말한다면 이곳은 '배움 이전의 배움', '운동 이전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다. 여기서의 배움은 지식의 습득 이전에 일어나는 주체의 각성이고, 여기서의 운동은 이념과 조직 이전에 생겨나는 새로운 삶을 향한 내면의 움직임, 욕망의 깨어남이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노들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 노들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할까. 그 강연 날에도 덕담 삼아 누군가 노들이 빨리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노들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그

리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장애인들이 힘겹게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들야학은 없어질 거라고.

좋은 세상이라면 노들이 필요 없다는 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들을 세상이 아프다는 증거로, 일종의 '증상'으로 간주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내가 이해한 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이해한 노들은 문제의 장소도, 해법의 장소도 아니었다. 노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장소, 문제가 새롭게 정의되는 장소였다(철학적 표현을 쓰자면 '문제'(problème)가 아니라 '문제설정'(problématique)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문제를 따라 새로운 주제, 새로운 투사가 만들어지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장애인 개인의 딱한 처지이자 매달 500만 원을 조달하는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노들에 오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문제이며 이 차별을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노들이 없는 세상이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제기가 없는 세상인 것이고,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차별을 깨뜨려나갈 장애인 투사가 태어날 공간이 없는 세상인 셈이다. 나는 그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노들이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2019년 '노란들판의 꿈'을 진행하면서 나는 무대에서 훨씬 빛나는 것, 내가 알던 것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노들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홍은전 선생이 노들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들려줄 때 나타났다. 그는 '문기두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노들 활동가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언니는 일단 밥을 먹어야 해요"라고 답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되게 자주했어요. 차별이 없어져서 노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덕담처럼 했었는데, 나는 그 말이 묘하게 듣기 싫었어요.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왜





저 말이 듣기 싫었을까. 그런데 기두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던 것, 세상이 망해도 노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마지막에 누군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이 망해도, 누군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것은 노들이다. 이 말이 노들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올렸다. 나는 노들 사람들의 눈에서 특특 떨어지는 그것을 보았다. 교육이니 운동이니 각성이니 욕망이니 문제제기니 하는 말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던 그것. 노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의 뿌리가 향하는 그것. 내가 만난 노들 사람들 모두가 가슴 한편에 최소한 한 컵씩은 가지고 다니는 그것. 그날 무대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을 죽어지내던 사람들이 노들에 오면 살아나는 이유가 있었다. 노들은 살 길을 찾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세상 끝에서 “언니는 일단 밥을 먹어야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진 비마이너 박승원기자

## 결불 피러 오시라

≡≡≡ 최경미

사이다라고 불린다. 다시 정처를 찾기 위해 암중모색 중이다.

9년 동안 일했던 대안학교를 그만두었다. 외부 사람이 되었다. 위치가 달라졌으니 동료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했다. 지금껏 내부와 외부를 교차하며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인 마음에 불과했다. 다시 어디에 발을 딛고 길을 만들어가야 하나, 내 삶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상의 거처를 잃어버린 듯하여 잠시 절망했으나 경계를 두지 않을 수 있으니 자유로워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학교를 나오고 보니 새삼스레 대안학교의 좌표가 보였다. 그동안의 궤도를 이제는 ‘탈’해야 한다는 사실.

스물여섯번째 <노란들판의 꿈>의 솔로건도 ‘나-간다’였다. ‘탈’시설, 함께 살자. 우리가 서로 ‘탈’이라는 접두어를 함께 써 왔다는 것을 새삼 발견한다. 하지만 ‘탈’학교를 지향하며 20여 년 동안 ‘대안’을 만들어왔던 실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만들기’ 운동이 되어 버렸다고 무참하게 고백한다. 20세기의 ‘탈’학교 운동은 결국 무수한 대안학교를 만들어 냈다. ‘대안’은 학교를 넘지 못했고 대안‘학교’는 바깥을 향하는 교육을 상

상하는 데 한계가 되었다. 학교를 나오니 비로소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해왔던 일이 바로 한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우리는 망하지 않으려고 무능력을 합리화를 하고 있고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을 지키려고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렇게 점점 퇴색하고 보수적이 되는 거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탈’시설을 향하는 노들은 운동의 중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질투하고 싶었다. 그리고 26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온 뜻과 마음에 의지를 보태고 싶었다. 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을 찾아올 때마다 가장자리를 확장하며 역사를 만들어왔다. <노란들판의 꿈>도 현장 안과 밖의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광장을 만들어 왔다. 올해의 꿈은 10년 전 석암 투쟁으로 탈시설 운동의 씨앗을 뿌린 여기,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나간다. 나, 간다’를 함께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함께 마로니에 공원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고병권과 박정숙 선생님이 낯설게?! 안 내하는 축제의 시간에 합류했다. 예상치 못한 고병권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사회는 신선했다. 쿨레칸의 오프닝은 역시 흥겨웠고 압권은 노들 피플 퍼스트로 진행된 합창 메들리였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 한 명 한 명의 존재감이 만든 신명남이 우리를 들썩이게 하였다. 감동이란 이렇게 메들리로 전달되고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진 김동림과 박경석, 홍은전의 대담은 우리가 서로 고립시키지 않고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포기에 맞서고 외면과 싸우며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씨를 지폈다. 특히 박경석 고장의 기정 씨를 돌보는 여러 활동가들이 정성과 함께 하는 삶에 말·잇·못의 글썽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소문내고 싶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나 그들의, 지금 여기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은 그 용기를 고마워하는 그 마음은 오래 따뜻했다. 바로 뒤이은 활동가

들의 명량한 춤사위는 박고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거라 믿는다. 기정 씨의 곁에, 박고장의 곁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곁에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노란들판의 꿈>은 서로에게 밑불이 되고 사회의 불씨가 되는 광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한 자리에서 절망도 희망도 없이 허망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조한혜정 선생님이 누군가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지금은 무얼 해도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지 않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마른 장작이어서 스치기만 해도 불씨가 붙어 활활 잘 타올랐는데 지금은 다들 젖어 있어서 불을 붙이려는 사람만 무력해질 뿐이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젖은 장작을 말리고 있는 때라고.



그래서 불씨를 붙이는 일이 더 귀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노란들판의 꿈>은 여전히 밑불이고 불씨라고 말하고 싶다. 여전히 사회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저항하고 투쟁하는 광장에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젖어 있는 사람들이여, 노들에 와 결별을 꾀며 말리시길.

#### 아직 못다한 말

노들은 항상 빛이 있고 올 가을에도 그 빛을 해결하기 위해 판을 벌였고 나는 노들에 진 마음의 빛을 함께 함으로 갚는다. 노들 밖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노란들판의 꿈>이었고 그

시간을 빌려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심전심한다. 누구 덕분에, 누구를 위하는, 이런 마음과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진 삶 속에서 오랜만에 당신들 덕분에 뜨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노들이 좀 더 풍요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 비마이너 박승원기자



# 퍼레이드진진진

≡≡≡ 다이애나랩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이애나랩입니다. 다이애나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다구요? 저희는 목요일 낮 수업 <진zine수업>을 진행하는 유선, 백구, 원정이 모여서 만든 그룹입니다. 사실 다른 멤버들도 많지만, 아마 노들야학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저희 셋일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인포숍카페별꼴의 인테리어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휠체어도 부엌에 들어갈 수 있게 바퀴를 단 싱크대,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과 가구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각각 예술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각자 그림도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만들어요.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요. 카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이애나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지난 가을에는 <퍼레이드진진진>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인포숍카페별꼴과 들다방, 그리고 낮 수업에서 입는 진, 머리에 쓰는 진, 그냥 그런 진 등 다

양한 자기표현 작품을 만드는 워크숍을 했고, 노란들판의 꿈을 시작하기 전에 전시와 행진을 했었어요.

진은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유통하는 작은 출판물을 말해요. 기획, 집필, 편집, 인쇄, 제본, 유통까지를 모두 혼자 스스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진을 만들거나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를 진스터(zinester)라고 부르며 진페스트 등 행사에서 자주 만나요. 혼자서 창작한 작품을 든 창작자들끼리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 감탄을 하거나 칭찬을 하면서 진을 교환해요. 아주 싼 값에 파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잘 살면서도 또 모여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서로서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왠지 시설에서 자립을 해서 살고 있는 학생분들 같기도 해요.

진에는 정해진 형식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대충 혼자 막 만든 걸 다 진이라고 해요. 내가 만든 진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낮수업 학생분들 중에

는 집이나 시설에서 계속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아요.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학생분들이 진 만들기를 통해서 언어가 아니라 다른 표현방식으로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귀 기울이는 풍경은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저희는 평소에 만들었던 작품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 쓰고 흥얼거리면서 거리를 다 같이 걸었던 올해 <퍼레이드진진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모습 그대로 거리에 나간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퍼레이드진진진>의 하이라이트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큰소리로 동시에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내년에도 거리에서 큰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게, 퍼레이드진진진을 다 같이 해봐요! 그때까지 누구라도, 각자의 진을 차곡 차곡 만들어서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진을 내년 퍼레이드진진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다이애나랩은 올해는 <차별없는가게>라는 지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LGBTAIQ나 휠체어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가게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울리는 가게가 있다면 dianalab00@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들다방 오하나/뉴미에게 알려주세요! 들다방도 차별없는가게입니다. ^^





## 2019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참가 후기 숨겨진 도시들 1 : 블라디보스톡

≡ 증현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못 살아왔습니다. 아래 글은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소설을 패러디했습니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들야학 휴직교사 이가연 선생님의 글(<http://sdgforum.org/115>)을 읽어주세요.

해질 무렵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믿기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느 도시의 거주민은 여타 관료나 여행자가 다른 도시에 관해 말했던 것보다 그의 이야기에 더 큰 호기심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도시 속 삶이란 자신의 영토에 자부심을 가지며 안도하다가도 곧 영토는 완벽하지 않아 균열이 생기고 악취가 나기도 한다는 생각으로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역사가 폐허를 유산으로 상속한 것이 아닌가하여 허무와 비애를 느끼기도 하고, 흥미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매혹적이기도 한 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었다. 청년의 이야기는 피었다 이물어가는 도시의 운명에서 거주민들이 쉽게 지나치는 무늬들을 되살려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나흘간 이동하면 도착하는 슬픔의 도시 블라디보스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외지인이 묵어야 하는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이미 아시겠지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숙소에서 “자꾸만 턱과 장애물에

가로막혔고”, “방은 휠체어 이용자가 지내기에는 매우 비좁았으며, 큰동선이 필요한 여담이 문 때문에 휠체어에 얹은 채 열고 닫기가” 어려워 방을 바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장으로 가는 길도 턱으로 인해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위험한 찾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이루는 것은 턱의 높이와 지면에 달린 휠체어 바퀴 사이에, 이를 흘끗 보고 무심하게 도보공사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갑에, 그리고 그들을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에, 그리고 이것들과 우리의 여정 사이에 있으므로 이 불행한 도시 블라디보스톡은 불행에만 머물러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도블록, 신호등, 작업용 장갑, 휠체어 바퀴, 턱, 신발 외에도 도시는 무수한 기억의 파편들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도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도 스스로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진실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만을, 즉 부분적인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거주민은 진실이 궁금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탁했더니 경사로가 생기는 등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곳에서 SDGs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부당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SDGs란 2015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어 2030년까지 시민사회, 도시, 국가 등이 연합하여 세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목표, 의제 등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의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는 잘 알려져 있지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 이와 관련된 고민이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도시만의 입장을 고수하고 내부와 외

부, 문명과 야만으로 타인을, 따라서 자신을 규정하려는 유혹은 어느 곳이나 있듯이 이곳에서도 없지 않습니다. 홍보의 목적으로 나온 듯했던 기업과 그래왔듯이 따분한 소리만 늘어놓는 관료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도시들이 보여주는 징후도 그렇고,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세상에 없을 테죠.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역사는 끝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김도현 선생님이 신간 <장애학의 도전>의 279p에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횡단의 정치에서는 위치의 고정성보다는 대화가 영향력 있는 지식의 기초가 되는데, 이는 어떤 위치에 있는 주체도 기본적으로 ‘부분적이고 상황적인’ 경험을 읽을 지닌다는 것, 그들의 경험-읽에 일정한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 형성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주의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정치 현실이다. 여기서 '뿌리내리기'와 '웁기'가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 내지 방법이 된다. 대화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의 멤버십 및 정체성에 '뿌리내리기'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멤버십 및 정체성을 지닌 주체들과의 교류 및 공감을 위해 '웁기'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형식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횡단주의'다. 즉 횡단주의는 '동질적인 출발점'을 가정함으로써 포함이 아닌 배제로 끝나는 '보편주의', 그리고 '차별적인 출발점'으로 인해 어떤 공통된 이해나 진정한 대화도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에게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우리가 상처 받지 않고 잘 지내며, 잘 설득하거나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능력이 역부족이지만 대화야말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지만 '공식적이지 않고 결말을 열어둔 채로 함께하기'라는, 보장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이고 복잡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해방'을 향한 길은 파도치는 바다에서 겨우 어디론가 더 나아갈 수 있을 뿐 해안에 도달하리라는 보장은커녕 약속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야말로 비극적인 결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계에 부딪침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교사가 되는 듯합니다(오히려 우리는 비극이나 한계와 만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야 할 겁니다).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관계는 서로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오해를 의식할 때, 문제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러한 비극과 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가능성을 넘어서길 간절히 바랄 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된 독백이나 심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통 속에서 말이예요.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며 어둑해진 밤 어느 도

시의 거주민은 이 세상이 비극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극에 충실하면서 이와 다른 것을 구분해내고 공간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도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우연히 살게 된 이 도시보다 비극에서 벗어나있는 다른 도시를, 혹은 그러한 세계에 다다르기에 적당한 미래를 쉽게 상상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관계는  
서로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오해를  
의식할 때, 문제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러한 비극과 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가능성을  
넘어서길 간절히 바랄 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된 독백이나 심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통 속에서 말이예요.

## 그래서 우리는.....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기로운 서 있어요, 노란들판이.

2015년, 10주년을 지나면서 버는 돈과 쓰는 돈이 비슷한 정도가 되었어요. 전문용어로 '똥똥'이라고 하죠. 노동강도야 언제나 높았지만 애초에 '빡센' 일이 낫설지도 않았던 데다 지난 10년도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벌고 모으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복리후생이 조금씩 확대되어 갔고, 년초에는 많지 않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어요. 매출이 얼마큼 늘겠구나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니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당연한 순서로 식구도 늘고, 사무실도 조금 확장했어요. (저는 '식구'란 말을 좋아하는데 아시겠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일 하는 사람보다 정겹죠?) 운영진이나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3-4년 관촬았어요.

2019년에는,

고정지출이 거의 최대치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이 어긋났어요. 여러 방향의 조치가 고려되고 의논되고 있고, 결산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가능한 재정긴축과 매출확대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전망이랄 게 없어요. 대한민국과 같아요. [2020년 경제전망 '오리무중·고군분투' 2019년 12월12일 중앙일보]

공공기관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마감에 맞춰 12월에 폭풍처럼 일을 하면 해가 넘어가면서 조금 한가한 구조여서 1~2월엔 연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별도 휴가를 5일씩 사용할 수 있어요. 일은 날마다 전쟁이지만 송년회 때는 뭘 먹고 특별휴가 때는 뭘 할까 즐거운 고민을 하던 12월에 '폭풍'과 '전쟁'만 남은 데다 '불안'이 더해졌어요.

고난이라면 고난을 겪어 본 오래 된 직원들도, 큰돈은 못 벌어도 배려와 존중을 마음에 두고 일 하던 새내기 직원들도 당황하고 있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나쁜



지 않을 때도 1/4분기는 쉽지 않았으니까 경영상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2020년은 추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쩌면 누군가는 여러 이유로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남게 되겠죠. 뜻밖에 꽃피듯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보다 '오늘'을 더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해요.

좋은 줄 몰랐던 좋을 때는 관대한 줄 모르고 관대할 수 있었던 일들에 마음이 좁아지고, '염려'와 '불안'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보다 오늘 내 일과 내 옆자리를 보면서 웬만한 하루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살려고요.

경영악화가 아니어도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빠지기는커녕 더 좋아졌지만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사회적기업 노란뜰판]은 2006년에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생과 교사 4인으로 시작해서 14년째 실사물(현수막,배너)/인쇄출판물/디자인/판촉물을 만들며 전진해 왔고, 현재 (근로지원인 포함) 27명이 함께 밥을 먹고 일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바라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독이며 건너고 통과하려는 태도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응원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바라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독이며 건너고 통과하려는  
태도와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응원 해 주세요.

[형님 한 말씀]

## 후원자님께 드립니다.

≡ 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한 해도 이젠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어그제 같은 한 해가 벌써 그 맛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더 빨리 갑니다. 올 한 해도 노들야학은 후원자님의 덕분에 급식을 잘 먹고 수업도 특강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노들야학에서도 일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상들을 원만하게 지나가게 했던 것도 노들야학을 후원해 주시고 힘찬 응원과 애정과 사랑으로 곁에서 힘을 실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 계심으로 단단히 한 해를 살아 왔습니다. 노들야학 후원자님 참으로 노들야학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노들야학을 후원해 주세요. 노들야학은 새해에도 노들야학 후원자님의 응원과 격려 사랑으로 열심히 수업도 특강도 하면서 2020년을 든든한 노들야학 후원자님과 함께 잘 가겠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이사회에서 배제되어 그동안 참 많이 살아 왔던 사람들이젠 더 이상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이사회에서 살아 가려 합니다. 노들야학도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특강하여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를 바라면 가겠습니다. 여젠 이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변할 순 없지만 이사회는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두쟁들을 하면서 2020년 새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정과 응원 관심을 바랍니다. 노들야학 후원자님 2020년 새해엔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 지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 이 사람들 정말 문학이 체질이다! ‘백일장이 체질’ 심사 소감

≡ 박정수

노들장애학공리소 연구원이라는 멋진 직함을 갖고 있지만 연구는 안 한다. 가끔씩 <비마이너> 취재 기사 쓸 때 부딪힘을 느낀다. 노들장애인야학 철학 시간에 그리스 비극을 강독하고 있는데 호응이 적어 걱정이다. 가사노동으로 임금까지 받고 있으며, 대학교 교양과목 강의를 부업으로 한다

천성호 쌤이 백일장 심사위원을 제안했을 때 나는 “네? 아~ 네!” 딱 3초 만에 승낙했다. 야학 행사와 교사 회의에 자주 빠져서 미안했는데, 백일장 심사위원만은 웬지 거절해서는 안 될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 구석 어딘가 처박혀 있을 국문학 박사학위증 때문일까?

작년에는 참석 못해서, 상상만 한 백일장 심사는 간단하고 여유로웠다. 출품작은 대략 스무 편쯤 될까? 그 중 ‘읽을 만한’ 작품은 열편이 채 안 될 거고, 그 중에서 대어섯 편의 수상작을 고르는 작업은 간단해 보였다. 여유롭게 심사를 마치고 질어지는 마로니에의 가을을 즐기면 될 줄 알았다. 바보 같은 선입견이었다. 그동안 나는 노들야학과 문학을 몰랐다. 출품작들은 넘나 문학적이었고, 수상작을 고르는 작업은 넘나 힘들었던 것이다. 왜 심사위원이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까? 유지영(前 국어교사), 장선정(노들 공장) 두 분의 심사위원이 더 있고, 심지어 그분들은 작년에도 심사를 맡았다. 심사는 여럿이 함께해서 쉬워지는 일이 아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모아 설득과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에, 대충

생각할 수 없고, 판단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심사 방법도 만만치 않다. 무려 서른다섯 편의 작품마다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7개 심사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총점을 내고, 총평까지 적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 명의 심사위원 각각이 5명씩 후보자를 내고, 토론을 통해 학생 6명, 교사 2명의 수상자를 뽑는다.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시간. 처음이라서 그런가, 전체 작품의 수준과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편씩 읽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점수는 나중에 매기고, 일단 나는 작품을 읽어나갔다.

뜻밖에(?) 한 작품 한 작품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장애인이라거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발달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없었다. ‘접어들’ 것도 없이 그 자체로 문학이 줄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받았다. 솔직히 학생과 교사를 구분해서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나는 어떤 신체적 장애도, 어떤 정신적 장애도 느낄 수 없었다. 물론, 평상시 들을 수 없던 학생 분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



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설사 그분들을 모른다 해도 출품작에 표현된 체험들은 보편적인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영애의 「끝사랑」은 연애소설적 재미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17살 때 오빠 친구와 ‘썸 타는’ 장면은 손발을 오글거리게 했고, 느닷없는 이별과 그 오빠의 결혼 소식은 ‘상투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슬픔을 자아냈다. 다시 만난 오빠와 나는 대화 “그때 왜 이야기 안 했어?”,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이야기 해줘야지.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는 사랑이 상처보다 강하다는 작가의 씩씩한 개성을 잘 느끼게 해주었다. 다만 바로 이어진 마지막 문장 “나도 널 사랑했어. 그런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는 삭제하고 싶을 만큼 느끼하고 통속적인 판타지로 느껴졌다. 그러나 작품을 다 읽고 난 후 제목 ‘끝사랑’

을 되새길 때, 첫사랑이 곧 끝사랑인 아픔에 가슴이 아렸다.

장애경의 「탄진 씨에게」도 백일장 주제(친구/가을/꿈)와의 연관성을 묻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감동을 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에 뽑혔다. 같은 시설에서 만나 탈시설해 결혼까지 한 애경과 탄진 부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영화 같다. 이 서간체 작품은 탈시설 장애인의 삶이 동화가 아니라 리얼리즘을 통렬하게 보여준다. 모임 약속을 잊었다고 구박하는 남편에게 자기는 활동보조인과 둘이서도 잘 노는데 왜 탄진 씨는 그러지 못하는지, 왜 매사에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고, 혼자서는 아니, 활동지원사와 둘이서는 나가 놀지 못하는지 반문하며, “저한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설에서 나와서, 결혼도 하고, 같이 시위도 나가고, 집 문제도 해결했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시위 나가고 모임들에 같이 가는 것 좋아요.



다만 서로에게 떨어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연습도 이제는 해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이 글은, 장애인 시설만 거주시설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구속하는 가부장적 가정 역시 자유로운 삶을 위해 벗어나야(바꿔야) 할 시설임을 시사한다.

이미경의 시 「비 와도 눈 와도」는 내가 강력히 추천한 작품이다. “노들, 비 와도 눈 와도 / 학교에 간다 / 친구들도 하루 종일 있고 / 명학이 할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딱 4행으로 이뤄진 시다. 현대 시조 같기도 하고, 일본의 하이쿠 같기도 한 이 시는 압축적 형식미가 압권이고, 그 안에 노들야학의 즐거움을 더할 것도 없고, 뽀 것도 없이 완벽하게 녹여냈다. 특히 마지막 행 “명학이 할아버지도 있다”는 결구(結句) 특유의 반전미를 구체성의 미학으로 구현하여 유머로 응결시킨 숨씨가 놀랍다.

김희자의 「일자리」는 시(詩)의 세계에는 발달장애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시 역시 형식미가 탁월하다. “청소하는 일 하고 싶어요 / 청소하는 것 좋아해요 / 물건 나르기 좋아해요 / 집에 물건 나르는 것 좋아요 / 손님한테 커피 주는 것 좋아요 / 커피 주는 것 시험 보기도 좋아해요” 구절은 2행씩 대구를 이뤄 차이나는 반복의 리듬을 창출했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언어 습관이라도 좋고, 활동지원사와의 문답으로 얻은 문장이라도 좋다. 어쨌든 훌륭한 리듬이고, 그 리듬 속에 하고 싶은 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좋아요. 행복해요 / 일하고 돈 받고 싶어요 / 하루 일하면 3만원 받고 싶어요” 구절은 ‘행복’ → ‘일’ → ‘하루 3만원’으로 구체화되는 의미 연쇄 속에서 웃음이 터질 만큼 즐거움 리듬감을 자아낸다. “머리끈, 머리핀, 시계 사고 싶어요 / 좋아요 / 강미애 선생님한테도 선물 사주고 싶어요 / 좋아요”로 이어져 마무리되는 구절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에서 시의 천재성을 찾은 낭만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일하게 만든다.

신기하게도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당선작을 고를 수 있었다. 노들야학 백일장 심사를 하면서 새삼 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에는 장애가 없다. 문학은 정상성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기 삶과 내면을 집중해서 살피고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문학을 통해 일상에서는 잘 못 보던 서로의 내면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노들야학 사람들, 정말 문학이 체질이다.



## 2019 노들야학 백일장 “백일장이 체질”

### ★ 수상작 여섯 편 대공개 ★

1 끝사랑 \* 이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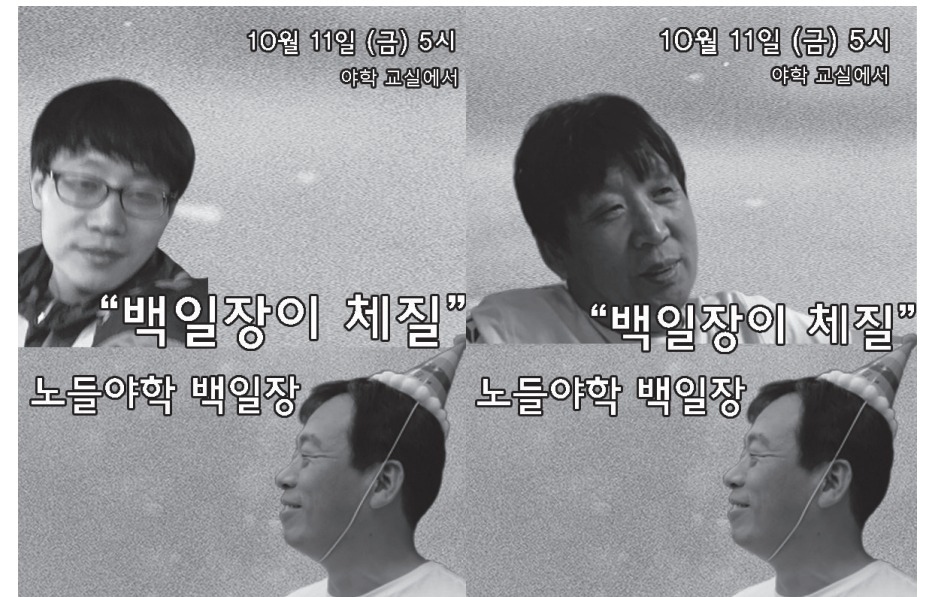
4 탄진씨에게 \* 장애경

2 일자리 \* 김희자

5 노들을 권유함 \* 박송이

3 비 와도 눈 와도 \* 이미경

6 투쟁인 듯, 춤인 듯 \* 천성호



수상작

① **끝사랑** \* 이영애 불수레반

제가 17살 때 친오빠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오빠가 친구랑 같이 집에 왔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되게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코도 오뎅하고,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연예인 주진모를 닮았습니다. 그 오빠가 저를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안아주고, 과자도 사다주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혈레벌떡 와서  
“어디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 갔다 올게.”

30, 40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저를 번쩍 안았습니다.

“영애야 어디가자. 오빠랑 같이 데이트하자”  
“어디가는데?”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러자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왜 눈을 감아야 해?”  
“놀래켜 주려고.”

눈을 감았더니 저를 안고 대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눈 떠봐 영애야.”

밑을 내려다 봤더니 리어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돛자리와 폭신폭신향 이불이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기타와 간식거리도 놓여있었습니다. 햇빛을 막아주려고 우산도 세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리어카를 땀 뻘뻘 흘리면서 끌어줬습니다. 오빠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빠 안 힘들어?”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

30분 걸려서 한강 독섬유원지에 도착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돛자리랑 이불을 깔고 저를 눕혀놓았습니다. 오빠가 머리맡에 앉더니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무릎위에 제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먹기도 하고, 오빠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노래를 들으면서 살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눈을 떴는데, 제 뒤로 오빠가 저를 꼭 껴안고 팔베개 해주면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오빠가 집에 계속 안 왔습니다. 친오빠한테 물어보니, 왜 물어보냐고 오하

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며칠 후에 친오빠가 양복을 빼입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깐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죽이 왔습니다.

“혹시 그 오빠 결혼해?”  
“맞아...”  
“왜 말 안 해줬어?”  
“너가 상처받을까봐...”  
“나도 데려가줘!”  
“안 돼.”  
“왜 안 돼? 전철로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 뒤로 대성통곡하고 몇날며칠을 울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넘겼습니다. 그렇게 3년 넘게 음식을 잘 못 넘겼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친오빠한테 결혼 이유를 물어보니깐 부모님이 반대해서 집안에서 정해진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오빠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이야기 안했어?”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이야기 해줘야지.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나도 널 사랑했어. 그런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수상작  
**② 일자리** \* 김희자 청솔1반



청소하는 일 하고 싶어요  
청소하는 것 좋아해요  
물건 나르기 좋아해요  
집에 물건 나르는 것 좋아요  
손님한테 커피 주는 것 좋아요  
커피 주는 것 시험보기도 좋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일하고 돈 받고 싶어요  
하루 일하면 3만원 받고 싶어요  
머리끈, 머리핀, 시계 사고 싶어요  
좋아요  
강미애 선생님한테도 선물 사주고 싶어요  
좋아요

수상작  
**③ 비 와도 눈 와도** \* 이미경 한소리반



노들, 비 와도 눈 와도  
학교에 간다.  
친구들도 하루종일 있고  
명학이 할아버지도 있다.

수상작  
**④ 탄진씨에게** \* 장애경 청솔2반

요새 우리가 좀 다뤘죠. 탄진씨는 나에게 기억을 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기억 못하냐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 게임하면서 오늘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해 놓고는 막상 움직일 때면 깜박 잊어버릴 때 많아요. 미안해요. 나도 잘 기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요즘 그래요. 나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녁 8시 반 이 후로 활동보조가 없으면 항상 같이 있게 되죠. 그러면 낮에는 서로의 활동보조인이 있으니 따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활동보조인하고 마트를 간다든지, 공원을 간다든지 나에게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 활동보조인이 있으니 꼭 탄진씨 가는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내 활동보조인하고 나는 둘이 나가서도 잘 노는데 탄진씨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 둘이서도 잘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고, 나한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꼭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하는 약속 기억 못 했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아요.

저한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업시간에 배운 건데 ‘니체’라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뜨개질해보기, 커피 집에서 활동 보조인하고 수다 떠는 것, 큰 글씨로 된 책 읽고 글도 써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시설에서 나와서, 결혼도 하고, 같이 시위 나가고, 집 문제도 해결했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시위 나가고 모임들에 같이 나가는 것 좋아요. 다만 서로에게 떨어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연습도 이제는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얼마 전에 나는 멘티였던 지적장애가 있던 친구와 꽃구경 갔던 것도 좋았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남은 동안 아프지 말고 몸 건강하게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도 가져보며 지내봅시다. 탄진씨, 앞으로 들은 이야기 잊어먹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상작

⑤ **노들을 권유함** \* 박송이 교사

자 눈을 감아봐  
 년 지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  
 편한 신발을 신은 두발은 너의 몸을 바닥으로부터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지

시원한 바람에 날리는 앞머리가 이마를 간지럽히고 하늘도 푸르게 맑아. 따뜻한 햇볕은 적당해. 덤지도 춥지도 않고. 딱 가을 날씨야. 눈앞에는 흐릿하게 따뜻한 빛깔을 띠는 노란 한 무리가 있어. 혹시 우리가 보이니?

우리 중 누군가는 키가 작고, 더러는 느리게 크기도 해. 바람 때문에 앞뒤로 몸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바람을 타고 춤추기도 하지. 몸이 꺾이면 친구들이 받쳐줄 거야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쪽정이라고 부르지 않아 가라지는 더욱 아니지

함께라서 우리는 노란 물결이 됐어  
 함께 있으니 우리는 부끄럽지 않았고  
 함께 있을 때는 모르는 것도 용감해지지

여기선 누구도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 너무 오랫동안 추웠잖아

너도 봤지? 별거 없는 거  
 같이 놀자. 우리랑 놀 때 제일 재미있지는 않아도 심심하진 않을 거야



수상작

⑥ **투쟁인 듯, 춤인 듯** \* 천성호 교사

거리의 투쟁, 우리는 하루를 거리에서 보낸다.  
 우리의 많은 공부는“현장”의“수업”이고, 현장은 거리이다. 또는“농성장”이다. 농성장에서“집회”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낮수업 학생들은“거리의 투쟁”을 알 듯, 말 듯 이해 한 듯, 말 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는 것처럼, 때론 보지 않는 것처럼 눈들은, 몸들은 흔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선은 춤을 추며, 원주는 노래를 부르며, 장기는 노래와 춤을 함께, 수진은 무언가를 가리키며, 연옥은 궁금함으로, 소민은 귀신을 보았다고

한다. 누군가는 배가 고프다고..

승미는 자기의 다리를 만지며, 희숙은 술래잡기를 하듯, 현상은 중얼거리며, 주희는“싫어”를 외치며, 원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승연은 끝없는 질문으로, 재형은 자신의 박수 소리에 들떠, 경남을 몸으로 춤추며, 임실은 좀 더 넓어지는 보폭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아니 조금은 낯선 두려움으로 용기를 내어, 아니 조금은 힘겨운 용기를 내어 투쟁은 같아도, 저마다 방식은 다르다. 저마다 몸짓은 다르다.

그래, 우리는  
 투쟁인 듯, 춤인 듯..



[교단일기]

# 바야흐로 대세는 BTS가 아니라 NTS<sup>1</sup>다!

노들테크노전사들과 함께한 일년을 돌아보며

## 야마가타 트웝스터

자립음악가 한밤의 테크노투쟁음악 분신입니다. 2010년 홍대앞 두리반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후로 지금까지 민중엔터테인먼트로 활동중입니다. 두리반 투쟁 이후로 전장연의 투쟁에 연대하며 승리를 향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노들음악대-“노들테크노전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야마가타 트웝스터입니다. 늘 투쟁에 연대하러 와서 노래만 하고 헤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노들야학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노래하게 되다니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 했고 계속계속 영광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뿌듯합니다.)

올해 초 노들야학 음악대를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그 자리에서 노들테크노전사들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투쟁현장에서 제가 노래할 때 힘차게 웃으며 함께하던 친구들인데 수업시간에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노들테크노전사들, 벌써 그 이름에서 무언가 강렬한

투쟁의 기운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첫 수업부터 우린 원기충전하여 어떤 노래를 재밌게 즐겁게 힘차게 불러볼까 고민했어요. 일단 제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할 때마다 즐기게 불러서 다 아는 “나쁘자나송”을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차별받은 경험을 가사로 새롭게 써서 불러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페스테자 친구들이 만들어 함께 연습한 노래-“불어라 노들바람”-를 테크노음악 스타일로 편곡하여 불러보게 되었어요. (페스테자 친구들이 만든 원곡이 좋았기 때문에 편곡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곡은 현재 노들테크노전사들의 가장 아름다운 투쟁가가 되었습니다. (3월 13일에 가사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요.)

노란색빛 들판 위에 학교는요  
노들야학이라고 불리우죠  
이곳으로 언제라도 놀러와요  
내가 사는 삶 속으로 들어와요

내이름을 처음 쓰고 내 일상을 물어주는  
이곳에서 우리는요 투쟁하며 노래해요

노란색빛 들판 위에 학교는요  
노들야학이라고 불리우죠  
이곳으로 언제라도 놀러와요  
나의 삶 그 속으로 들어와요

나의 삶을 노래하네 나의 삶을 보낸다네  
나의 삶을 노래하네 나의 삶을 사랑하네

불어 오네~ 노들 바람~ 노들 바람~  
불어 오네~ 노들 바람~ 나의 하루~  
노오란 들판~ 불어 오네~ 노들 바람~

제가 생각하는 노들테크노전사들의 수업 방향은 이렇게입니다.

-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사를 쓰자.
- 장애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자.
- 장애인 자신이 직접 악기를 선택, 연주해 보자.
-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선봉에 서서 노래하자.

노들테크노전사들은 420 투쟁 결의대회 무대에서

첫 공연을 했죠.(4월 20일 오전 11시경 데뷔!) 어찌나 떨리던지요. 신기하게도 이 날은 제가 16년 전에 홍대앞 라이브클럽 ‘빵’에서 데뷔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빵’이 먹는 ‘빵’이 아니라 ‘감빵’의 ‘빵’이거든요. 이것도 감빵같은 제도와 시설에서 탈출하려는 의미와 맞닿았고요. 그때도 정말 많이 떨었었는데 그때만큼 떨었던 것 같아요. ‘온달’이란 친구에게 부탁해 급하게 전사들의 의상도 제작해서 입고 (머리에) 쓰고 나갔었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좀 멋지지 않았나요?

여름엔 노들야학 후원주점에서 콜레칸과 협연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지요. 피날레는 제가 부르는 “돈만 아는 저질!” 공연이 끝나고 폭우가 쏟아지던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주(12월 첫주)까지 전사들은 계속 수업을 이어 나갔고 정말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후덜덜한 투쟁가-레파토리<sup>2</sup>를 보유해가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와 탈-시설까지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선봉에서 전사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길 바래요. 빈말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이제 대세는 바야흐로 BTS가 아니라 NTS, 노들테크노전사들입니다! 금융자본의 메카 런던의 웹블리 아니라 차별과 억압에 맞서 서울의 이거리에서 지상 최고의 공연을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노란들판으로부터 테크노전사들이 오는 것이 보여요.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마침내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1 Nodle Techno Singersongfighter의 약어.

2 기존 가요를 개사하고 테크노로 바꾸어 투쟁에 흥을 불어넣는 데에는 우리가 천재적입니다. 창작곡도 곧!!





노들테크노전사들이 여름날에 동묘앞 구제웃시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 전국 피플퍼스트 참가기

### 박송이

노들야학 교사. 언론사에서 뉴미디어를 담당합니다.  
아날로그적 삶을 지향해요. 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싶습니다. 피쓰-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대통령보다 무려 38년  
이나 앞선 어느 날 한 발달장애인이 외쳤다고 한다. "먼  
저 사람이고 싶다(피플 퍼스트-*People First*)"고. 그  
는 마냥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획  
일성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저 '나'로 대접받고 싶었  
다고 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말하기로 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말이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개최지가  
부산으로 정해졌다. 전국에 있는 1000여 명의 발달장  
애인이 모일 예정이었다. 이런 행사에 노들야학이 절  
대로 빠질 리가 없다. 노들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과 활동가들 약 50여 명이 함께 참가하기로 했다. 나는  
"1000명이나 되는 발달장애인이 전국에서 다 모인대"  
라는 박경석 교장샘의 꼬드김에 넘어가 피플퍼스트에  
손가락을 얹었다.

9월 20일 아침 8시,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 대합

실에 하나둘 모였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노들야학에 모여 선생님과 함께 서울역으로 온  
학생들도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인 인강원에 사는  
학생들도 함께 봉고를 타고 서울역에 집결했다.

도착하자마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단체 조끼로 갈  
아입었다. 저 멀리서도 보일 법한 셋노란 색이었다. 우  
리는 서울역에서 제일 멋지고 눈에 띄었다. 현수막 앞  
에서 쿨하게 단체 사진을 찍은 노들은 행인들의 시선  
세례를 받으며 기차 플랫폼으로 향했다.

앞으로 1박 2일을 함께하게 될 짝공이 정해졌다. 학  
생과 선생님, 일대일이다. 저마다 들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거나 나란히 걸으며 부산행 KTX에 몸  
을 실었다. 노들은 무려 기차 '한 칸'을 전부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우리는 도시락을 까먹고 야무지게  
간식도 챙겨 먹어가며 유유히 부산까지 왔다.

부산역에 도착한 우리는 짝공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모여 더러는 지하철로 더러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부산 벡스코에 도착하니 많은 참가자들이 벌써 자리해있었다. 강원, 경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모였다. 서울 참가자들 자리는 행사장 가장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노들은 이곳에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다. 개회식이 시작하고 있었다.

개최 지역인 부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올해 피플퍼스트 진행을 맡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발달장애인들은 일자리, 연애, 자립에 대한 경험담을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화영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자신의 연애를 걱정하는 주변 시선과 간섭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내 주변 친구들이 연애하면 부모님들이 혼넙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거나 데이트 폭력, 성폭력 당한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은 안 위험한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연애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가고, 자식도 낳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불쌍한 장애인으로 동정 받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권리로써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이들은 일자리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판에서 핫이슈인 자립 생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모든 발표가 끝나자 ‘자유발언대’ 순서가 됐다. 갑자기 회의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평소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않았던 학생들은 너도

나도 참여를 원했다. 학생당 1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늦으면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노들 학생들은 쟁싸게 줄을 섰다. 모든 참가자 중에서 1번으로 발언대에 선 장기형!! 무슨 말을 할까? 두구두구...

“야~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트롯트를 좋아하는 장기형의 선택은 역시나 말보다 노래였다. 장기형을 필두로 참가자들이 줄줄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자유발언이 아닌 자유 장기자랑 시간으로 변한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인기곡이었다. 야학 낮 수업 학생인 희숙 님도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는 희숙 님과 진행을 돕기 위한 성호쌤의 작은 실랑이가 큰 웃음을 주었다. 무대를 장악하고 싶었던 희숙 님은 성호쌤 설득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너무나 유쾌한 자유발언이라 말하고 장기자랑 시간이라고 불린) 끝나고 초청공연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무대는 장혜영-장혜정 자매의 등장으로 시작했다. 혜정 님은 애창곡인 ‘반갑습니다’를 구성지게 불렀다. 영화나 영상에서만 들었던 장혜영 감독의 자작곡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더욱더 다정하게 들렸다. 장혜영 감독은 자리에 앉아있던 참가자들을 무대 근처로 불러모았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박차고 나가 무대에 오르거나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장 자매가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자 우리들은 훌쩍 듯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후 양천리 축제단과 래퍼 슬릭이 등장하자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양천리 축제단은 무대를 벗어나 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악기를 두드렸고 참가자들은 입으로, 몸으로 악기를 만들어 소리를 보냈다. 우리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르는 행렬처럼 신나

고 유쾌했다.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을 소개한 래퍼 슬릭은 회의장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웃고,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했다.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흥겨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숙소는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었는데 차로 가면 금방 도착할 거리였지만 걸어서 가기엔 차도가 있어 위험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이동수단으로 셔틀버스를 잘 준비해준 덕에 빠르고 편하게 숙소로 도착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무려 뷔페였다. 맛있는 뷔페 식사 이후에는 일정이 없어서 그대로 쉬면 끝이었다. 우리는 든든히 저녁을 먹고 방에 돌아가 쉬다가 야밤의 치킨타임을 가졌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치킨 아닌가. 우리는 삼삼오오 방으로 모여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그렇게 첫날밤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일정이 많지 않았다. 아침엔 조식을 먹고 참가자들이 원하는 분과회의에 참여하면 됐다. 자립 생활, 일자리, 취미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분과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도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즉석에서 발표했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우리 야학에서는 주원이형이 일자리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 당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바로 희숙 님이 장기형 얼굴을 갑자기 때리는 도전 행동을 한 것이다. 장기형은 그 자리에서 억울함에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두 사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나를 비롯한 신입 교사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등장해 둘을 중재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돌발상황을 생각지 못해

느꼈던 당황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켰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폐회식이 열릴 차례였다. 우리는 유스호텔 내에 있는 회의장으로 모여 이틀 동안 열렸던 피플퍼스트의 성과와 의미를 정리하며 단체 사진을 남겼다. 큰 사고(?)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는 소소한 소동과 해프닝을 뒤로하고 12일 같았던 1박 2일 피플퍼스트는 끝이 났다.

첫 참가였던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무척 즐거웠다. 다만 이런 부족한 참가자 눈에도 피플퍼스트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있었다. 일단 거의 모든 행사가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된 듯 보였다. 소음에 민감하거나 도전 행동을 하는 몇몇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앞이나 발언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다. 때문에 장애 정도가 덜 심한 참가자들 위주로 행사가 꾸러졌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참가자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조금은 안타까웠다. 주최 측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언 기회를 한정하고 무대를 통제한 점도 참가자들의 불만을 샀다. 애초에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그 많은 인원이 모두 자신의 말을 하기 힘들었을 테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두를 위한 피플퍼스트라도 필연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쉬움과 애트함을 남긴 피플퍼스트였지만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그때는 좀 더 즐겁고 유연하게 피플퍼스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에서 열릴 '2020피플퍼스트'를 고대하며.

## 처음 가본 노들야학 모꼬지가 좋았습니다

김상현

깊은 생각 없이 노들 야학에 한 번 왔다가 올 때마다 충격을 받으며 점점 빠져들고 있는 신입 교사입니다.





저는 신입 교사입니다. 처음 가본 노들 야학 모꼬지는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느낌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벌써 아쉽습니다.

11월 2일. 날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했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버스 3대와 승합차 1대가 교사, 학생, 활동지원사 80여명을 싣고 10시 반쯤 서울에서 용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김밥이 맛있었습니다. 엔돌핀 김밥입니다. 나중에 교사회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김밥을 언급하며 준비팀을 칭찬했습니다. 와우정사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멀리 부처님의 거대한 머리가 보였습니다(몸은 없습니다). 부처님 머리 뒤에는 공작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새하얀 공작새도 있었죠). 기와불사를 하는 곳에는 한국어와 태국어가 적혀있었습니다. 천성호 선생님이 동남아의 소승 불교와 우리나라 대승 불교는 다

른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관광객이 제법 많았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을 도와 김선심님의 휠체어를 밀어 언덕을 올랐습니다. 빨간 단풍이 든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와우정사를 떠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쓰비 캔 커피를 네 다섯 개 사들고 가던 정지민님이 그 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캔이 터졌는데 괜찮다고, 자기가 마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속촌에서는 10개 조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저희 조는 입장하자마자 어느 처마 아래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도시락을 놓고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사이를 걷다가 천성호 선생님이 "봉규 형, 이거 다 어렸을 때 보던 거 아니에요?"라고 농담조로 물었는데 이봉규님이 그렇다고 대답해서 다들 조금 놀랐습니다. 입구에서 먼 장터(푸드코트)까지 가서 인절미와 커피를 사먹었습니다(1/n하자고 하고 이현아 선생님이 계산했던 거 같은데 아직 돈을 못 드렸네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옆에 보리와 무가 심어져있었는데, 김희정님이 태연스레 무 하나를 수확 뽑았습니다. 김희정님은 나중에 관아에 가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정종현 선생님이 마음이 약해서 아주 세계 치진 않는 듯 했습니다.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야학을 잠시 떠나는 김희자님에게 박누리 선생님이 인생 상담을 해줬습니다. 박송이 선생님과 이현아 선생님이 자신들이 소따라면서 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 도착하니 먼저 오신 분들이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리비와, 고등어, 오징어를 씻고 손질했습니다. 배승천 선생님이 고등어를 구웠는데 그 기름이 숯불에 떨어져 지옥불(hellfire)이 피어 올랐습니다. 지옥에서 온 고등어는 속이 덜 익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진 인기가 좋았습니다. 바베큐를 하던 장소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술과 밥이 들



어가니 자연스레 출판, 노래판이 벌어졌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최고의 인기곡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식었을 때 허신행 선생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를 "너는 내 딸이라"로 개사하여 부르며 분위기 부흥(혹은 부흥회 분위기)을 유도했습니다. 약해진 숯불에 박누리 선생님이 굴을, 조은별 선생님이 감자와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하나에 5천원이라고 했지만,

그걸 먹은 그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아침 햇살이 시원스레 내렸습니다. 리조트에서 아침을 먹은 후 건물 뒷 편에 있는 풋살장(outdoor futsal field)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진행을 맡은 박송이 선생님이 노란 풍선 30개에 바람을 넣었습니다. 무선 마이크에 건전지가 다 되어 진행이 어려울 뻔 했는데, 유금문 선생님이 자신이





갖고 있던 건전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김필순 선생님이 페트병에 노란 풍선을 달고 그림을 그려 성화 봉송용 성화를 만들었습니다. 한혜선 선생님이 김희자 님에게 성화를 건넸고, 김희자 님이 풋살장을 가로질러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비로소 시작된 체육대회의 첫 순서는 OX 퀴즈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장 샘과 창조 샘 중 고장 샘이 전화를 먼저 받는다"였습니다. 한쪽에선 "정창조! 정창조!"하는 구호가, 다른 쪽에선 "박경석 못 믿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걸자마자 박경석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호 샘과 태종형이 눈싸움을 하면 성호 샘이 이긴다"였습니다. 천성호 선생님의 가는 눈은 뜬 건지 감은 건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임태종 님이 약간 불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천성호 선생님은 얼굴을 천연덕스레 들이밀며 상대에게 공격을 가했고, 임태종 님은 그 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피하다가 눈을 깜빡이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눈싸움 대결(김수지 님 vs. 최영은 님), 누가 "꼬끼오~"를 더 오래하는지(정진영 선생님 vs. 정중현 선생님), 누구 지갑 혹은 주머니에 현금이 많은지(김흥기 님 vs. 박점순 님), 누가 더 빠른지(김호진 님 vs. 김흥기 님; 김진수 선생님 vs. 하상윤 님) 등의 대결이 이어졌고, 살아남은 사람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OX퀴즈의 끝까지 살아남은 박지호 님이 상품으로 목욕용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체육대회의 두 번째 순서는 이어달리기였습니다. 평범한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풋살장을 돌면서 큰 공(gym ball)도 차고(위험 요소가 있어서 나중엔 제외했습니다), 노란 풍선도 터뜨리고, 큰 주사위를 5가 나올 때까지 굴리기도 하는 일종의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처음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 당 주자 3명이 달리는 것이었는데, 점차 자원자가 많아져서 추가로 경기를 했습니다. 주자들이 달려가며 노란 풍선을 터뜨리기 좋게 가을 선생님, 박준호 선생님, 유금문 선생님, 이종운 선생님, 정진영 선

생님이 풍선을 잘라주었습니다. 주사위 굴리는 걸 도와 준 건 야학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 박임당 선생님과 한혜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김경남 님, 김수지 님, 김장기 님, 이인성 님, 이혜미 님, 이홍철 님, 임기하 님, 정혜운 님, 최동운 님 등 여러 명이 달렸습니다. 김유미 선생님은 모두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주자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느라 누가 몇 번째로 뛰었는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품인 목욕용품 세트는 여럿이 나눠가졌습니다.

용인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동승동에는 1시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노들야학 모꼬지는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모꼬지의 뭐가 그리 좋았는지에 대해선 독자의 상상력에 기대보겠습니다. 이 원고를 청탁한 김진수 선생님에게 "필생의 역작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려진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처음 가본 노들 야학 모꼬지는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느낌을 독자들께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벌써 아쉽습니다.



노들아  
안녕

## 사람이 사람에게

가을

‘가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노들바람 원고 좀 써줘. 써줄 수 있지?’  
‘네 그럼요.’

노들야학의 큰형님. 명학형님의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소위 바쁘다는 핑계로 몇 가지 이유를 찾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탁이 고맙고 기분 좋았기 때문이다. 매학기 노들을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할당된 원고. 언제나 투쟁현장에서 특유의 목적함을 보여주는 사람의 부탁. ‘노들아 안녕’을 쓰며, 노들야학에서의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본다.

안녕하세요. 가을이라고 합니다. 2019년 2월. 나는 낯수업에 처음 참여하였다.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방과 체육수업을 할 것이고, 개구쟁이 학생도 있다는 낯수업. ‘내 나이가

어때서’는 역시나 인기곡이었고, 줄다리기의 줄은 팽팽하지 않았으며, 개구쟁이 학생의 손은 너무 작아 쉬이 잡을 수 없었다.

‘우리 같이 이거 해볼까요?’

‘... ...’

‘저랑 화장실 가실래요?’

‘싫어’

‘손잡고 갈까요?’

‘... ...’

어색한 공기, 서먹한 인사, 아직은 손을 잡고 싶지 않은, 사람 대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한 첫 단계, 나는 그 서투름이 좋았다. 당시 내가 교사회의에서 낯수업에 대해 항상 하던 말은 친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

고 있다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친해지는 걸 좋아해요.’

가을 선생도 오나? 매주 한 번씩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고, 매주 한 번씩 으쌰으쌰 줄다리기를 하고, 눈치를 보며 손을 잡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먹은 것을 챙겨주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

‘자, 이거 가을 선생이야’



한 학기를 끝낸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분명 사무실 벽에도 붙어 있던 그림, 이미 누군가에게도 주었을 그림. 그러나 종이 한 장

이 주는 몽클함은 야학이였기에 가능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봐요.

다시 시작된 가을학기. 여전히 ‘내 나이가 어때서’는 인기곡이었고, 줄다리기의 줄은 팽팽해졌으며, 개구쟁이 학생은 하나 둘 늘어났다. 조심스레 무릎베개를 하고. 먼저 화장실을 가자고 손을 내밀고, 수첩에 이름을 써달라며 펜을 주고, 웃음이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처음 타는 한강유람선, 그 설레고 신났던 날. 헤어지며 한 학생이 얘기했다.

‘월요일에 봐요.’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따듯했던 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 모두에게 주는 선물 같은 말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시간. 즐겁고, 슬프고, 속상하고, 즐겁고를 한 사이클처럼 묵묵히 지켜내야 하는 시간. 지난 10개월은 나에게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고, 슬프고, 속상하고, 즐겁고를 반복해야 하는, 그러나 서로에 대한 ‘존중’은 잊지 말아야 하는, 노들야학에서의 내년을 기대해 본다.

‘네. 월요일에 봐요.’



노들아  
안녕

## 탈시설하고, 노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최원진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진입니다.  
20년 가까이 인강원이라는 거  
주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16일 노들센터  
자립생활주택으로 입주하  
게 되면서 탈시설을 했습니  
다. 노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  
뻐요.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구요. 최근에  
는 장애인문화예술판에서 하  
는 “꿈틔움예술창작소”에서  
멘티로 참여하여 현대무용  
수업을 6개월 정도 하고 공  
연까지 했습니다^^  
노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  
니다~

노들아  
안녕

## 노들에서 발버둥치는 중

박상희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  
동지원팀 박상희입니다. 2019년 2월 겨울의  
끝자락 노들을 만나, 한 해를 버티  
며 살아남아 다시 돌아온 계절  
겨울의 노들바람에서 인사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병원을 같이 동행할  
사람, 식사를 챙겨 줄 사람, 운동을 같이 할  
사람, 주말에 함께 있을 사람에 매  
번 정해야하고, 그날의 당번이  
일이 생겨 안 되면 다른 사  
람이 얼른 달려 가야하며...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과 에너지가 필요  
한 것임을 느꼈고 힘이 들었습  
니다.



저에게는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남들보다 몸이 좀  
불편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  
상을 살아가는 도중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저희 가족  
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몸  
이 계속 피곤하고 불편하셨고 이 곳 저 곳 몇  
년의 병원 방랑 후,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희  
귀질환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치  
료 방법도 없고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고 하는데..ㅎㅎ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이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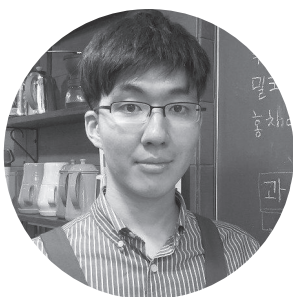
노들에 들어와 투쟁현장에서 몸소 체험하  
고 배우니, 제가 느끼던 힘들이 너무 부끄러웠  
습니다. 노들은 함께 하는 것에 지쳤던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  
이라며 지쳐서 회피하며 숨고 싶었더니, 뒤에  
서 밀어주었고 앞에서 이끌며 손잡고 함께 나  
가자고 해주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투쟁!



노들아  
안녕

## 저는 들다방 바리스타 윤준한입니다

윤준한



###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저는 들다방 바리스타 윤준한입니다. 제 나이는 24살입니다. 들다방에서 제빙기 세척하고, 컵 박스 세척하고, 창틀 청소하고, 커피 머신 청소하고, 냉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재로페이를 하시고, 외상값을 하고, 커피는 진한 맛연한 맛을 만들고, 커피 단맛을 만들고, 음료는 진한 맛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같이 도와주시는 박지혜 잠코치님, 박문규 매니저님, 오하나 선생님이셨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고 도와드리는 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 매일 새롭게, 함께 보내는 8시간

임해정

연육 수진 활동지원인

집에만 꼭 박혀있던 저에게, 친구가 세상에 한 발짝만 나오라고 권해준 직업 발달장애인 서포터즈.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두려움이 앞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권고에 못 이겨 면접을 보게 되었고, 지금 100일 조금 넘게 발달장애인 두 분과 함께 매일 8시간씩의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첫 대면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 담당 활동지원사가 바뀐다는 것은 그들에게 꽤나 큰 스트레스였고, 거부하는 그들의 표현 방식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버거웠습니다. 저와 그들의 시선과 언어가 충돌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적응시간도 거치지 않고 그만 두지는 않겠다.'는 저의 목표가 매일 매일 흔들렸습니다. 이동지원이 주 업무인 저는 이동 중 안전 문제에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시간. 우리들의 시간도 한 달 두 달 쌓여갔고, 조금씩 서로의 방식을 보고, 익혔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관계는 변했을까요? 아직도 조금씩 비껴거리긴 하지만 우리들끼리 서로를 향한 약간의 신뢰, 배려와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안함이 서로를 보며 웃게 해주고 어색함 없이 손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

동지원사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일부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에서 한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저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처방전을 받기 위한 질문! 100 빼기 7은?

김상희

노들센터 김상. 얼마 전에 읽었던 소설에 나온 문장이 너무 멋져서 옮겨 봅니다. "혼자라는 건 어떤 공간을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익명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였다."- 소설 <빛의 과거>(은희경) 중

##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받기 위한 질문 : 100 빼기 7은?

올해 내게 큰 과제가 있었다면 전동휠체어를 교체한 일이다. 전동휠체어는 나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sup>1</sup> 그래서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었다. 월급에서 일부를 뚝 떼어내 적금을 5년 동안 부었고 장애등급을 오래전에 받아 현재 장애 상태로는 전동휠체어 보장구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에 장애등급 하락의 위험성을 떠안고 매일 밤잠을 설치가며 떨리는 마음으로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받았다.

그리고 올해 초,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관련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근력검사와 인지검사를 받았는데 인지검사는

비지적장애임을 가정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자동차, 나무, 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검사 도중에 다시 물을 예정이에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요?" "만약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100 빼기 7은? 거기서 또 7을 빼면? 또..." 이와 같은 질문들과 겹쳐진 도형을 보고 따라 그리기 등의 테스트가 이어졌다. 사실 '비지적장애인'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나는 이 산수 암산 문제에서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상당히 컸고 검사가 간단하고 짧을 것이라 예상해서 다음 약속 시간을 여유 있게 잡지 못한 탓에 내 머릿속은 매우 분주해 있었다.

다행히 평균 점수는 넘어서 원하던 전동휠체어를 구

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했다. 이 검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면 나는 20년 가까이 타왔던 전동휠체어를 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장구 급여를 못 받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행이 불가능하고 전동휠체어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내게 '전동휠체어를 타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 단 30분 동안의 검사로 20년 동안 이동 수단이었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격 박탈이 되는 셈이다. 물론 100% 자부담 들여서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보장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부당함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 전동휠체어 처방전 받기 위한 작전

현재 나는 노들센터에서 활동하며 개인별 자립지원을 맡게 되어, 자립주택 입주자들의 개별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A님과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몇 십년 간 시설에서 살다 나온 B님의 전동휠체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두 분 다 독립 보행이 어려운데 오래되고 매우 위험한 상태의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하루라도 빨리 새 전동휠체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호기롭게 지원에 나섰고 계획도 두 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웠다. 솔직히 지적·지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A님과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B님이 전동휠체어 처방전 받기 위한 검사를 통과하는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미 전동휠체어가 이동수단인 두 분에게 처방전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문항만 잘 답하면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어쨌든 만점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A님부터 지원을 계획했다. A님에게 쉬운 질문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만한 활동을 계획했고, 첫 번째로 보조공학센터에 동행하여 구입 예정인 전동휠체어를 미리 타보게 했다. 평소에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생생 잘 굴러가는 새 전동휠체어를 타보면 승차감부터 달라서 새 전동휠체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새 전동휠체어를 타본 A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A님에게 수시로 보여주며 새 전동휠체어에 대한 구입 동기부여를 빼곡하게 채울 생각이었다.

검사 전에 사전 연습을 여러 번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동료의 말에 '전동휠체어를 안 탔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연습은 안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검사 당일 이 가까워지자, 걱정이 한껏 부풀어 올라 검사 당일이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사 당일, 진료시간 전에 한 시간 일찍 만나서 속성으로 연습을 해보자고 A님에게 제안했다.

## 장애 특성이 반영 안 되는 전동휠체어 급여 처방전 검사

드디어 검사 당일이 다가왔다. A님을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나는 A님에게 보조공학센터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며 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의사 선생님이 묻는 말에 아는 것은 대답을 잘하셔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병원에서 의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님의 활동지원사님이 지

1 관련 기사 : 내게 휠체어는 '바퀴 달린 의자'가 아니다 - 비마이너 beminor.com

정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셨는데 담당 의사가 시술 중이라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의료의뢰서를 보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종이 한 장 기다리는 동안 A님은 지쳐갔고 잘하던 대담도 머뭇거리는 상황에 이르러 의료급여 지원을 포기하고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보게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와 동행했던 A님의 동료상담가는 A님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 A님은 축축 처져 갔다. 그 상태에서 A님은 동료상담가와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는 밖에 있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3대가 줄줄이 들어가면 의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두 분만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진료실에 들어간 A님은 이미 지쳤고 새 전동휠체어에 대한 열망은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서 평소에 잘 대답했던 것도 묵묵부답으로 회답하였다. 당황한 동료상담가는 열심히 A님을 옹호하고 의사와 설전을 벌이며 전동휠체어 필요성을 설명했다. 결국 밖에서 안전부절못하며 서성거리던 나는 모의 테스트 질문이 길어짐에 위기를 느껴서 진료실로 달려 들어갔다. 그 순간 A님에게 암산을 요구하는 의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나는 그 질문을 가로막으며 'A님의 장애 특성상 그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이분은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평소에 전동휠체어를 잘 타셨고 활동지원사가 늘 옆에 계셔서 위험하지 않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자 간호사분이 제지를 했다. 의사는 본인도 처방전을 써주고 싶지만 인지검사에서 평균 점수를 못 넘기면 어차피 그로 인해 보장구 급여 심사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옆에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던 A님은 더 기가 죽은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인지검사를 한들 아는 질문도 대답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후퇴하고 검사는 다음에 하겠다며 황급히 빠져나왔다.

사실 A님은 매우 예민하신 분이다. 쉽게 주변 분위

기에 동조되기도 하고 상대방 목소리 톤에도 반응이 다르다. 어쩌면 오랫동안 시설에서 갇혀 살았던 탓에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 되어 주변 분위기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혀왔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의 성향과 목소리 톤의 변화에 따라 자신에게 해주는 지원의 손길이 달랐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쁨받을 수 있는지 시설에서 보낸 시간만큼 스스로 터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이 있는 A님에게 시설과 비슷하게 보이는 공간에서 처음 본 낯선 이(의사)가 딱딱한 말투로 질문을 퍼부었다면... 조금은 예상했던 결과이어야 했다. 나는 질문에 답을 못했던 A님을 탓하지 않는다. A님의 장애 특성과 성향 그리고 일상에서 얼마나 전동휠체어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고작 몇 가지 검사와 질문으로 전동휠체어를 탈 수 있고 없고를 판정하는 제도 자체에 화가 날 뿐이었다.

결국 다음 날 인지검사를 받았지만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 A님에 이어서 B님도 이 병원에서 인지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처방전을 못 받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A님에게 맞는 의사소통 도구를 고안하여 연습을 계속 시켰다. 첫 번째 병원에서 처방전 내어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A님은 연습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무사히 처방전을 받아낼 수 있었다. B님도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받긴 받았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다.

### 위험을 통제하는 국가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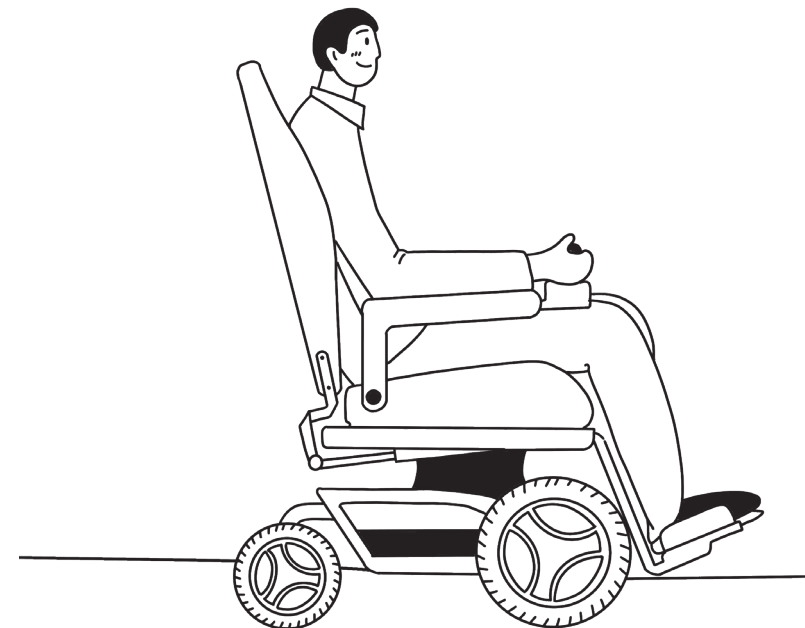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들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면 안 된다는 것은 사고가 날 위험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책임지기 싫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너무나 손쉽게 상대를 위험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회계층이 마치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고 너의 위험을 나만의 방식으로 막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나 역시 처음 독립하고자 했을 때 장애'여성'이라 위험해서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여성을 통제하는 말로서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야한 옷을 입으면 성폭력 위험이 있다'는 말 등은 위험에 대한 조언 같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의 심사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와 같다. 하지만 모두 안전을 위한 말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저런 사고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방식에 대해 당사자와 상의를 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전동휠체어 처방전 검사 방식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적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운전이 실제로 위험하다면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해서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운행 훈련을 하게 한다면, 조력자나 활동지원사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적·지체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가의 태도여야 한다.

현재 탈시설을 준비하는 수많은 중복장애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지금과 같이 전동휠체어 처방전 검사가 진행된다면 시설에서 나왔어도 멍하니 하늘을 보며 누군가 자신의 수동휠체어를 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바퀴 자국이 남도록 머물렀으면 되지 않았는가? 지역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녀 보겠다는데 이토록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지 보장구 심사 관계자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뽀글뽀글 할보상담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

서기현

7년동안 집안에서 거지꼴로 살다 IMF때 반강제 자립(자립생활 아님 ㅋ).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15여년. 현재 어느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놓고 먹으며.. 오로지 주동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10월 11일, 한자협(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김태훈 동지가 나에게 부탁한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것을 지키러 서울 프레스센터로 갔다. 김태훈 동지는 원래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의 위원장인 임형찬 사무국장이 참여해야 했으나 일정이 되지 않아 내가 대신 가야한다고 했다. 아니 내가 왜 …..

처음에는 그렇게 투덜거렸으나 토론회의 주제를 보고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당일날 토론회에 가는 동안 살짝 후회도 됐다. 아... 다른 일도 바쁜데. 하여튼 토론회장에 도착을 겨우 했고 아는 얼굴을 찾으려고 둘러보았으나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당황하며 김태훈 동지에게 연락을 했다. 조금 후에 문자가 왔다.

“어,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잘 부탁해~.”

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본인이 같이 오자고 해놓고 본인이 못 오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런 투덜거림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다가다 만

났던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눈을 찌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토론회 담당자인 듯한 실무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다. 나는 약간 늦어서 이미 토론회는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 제외 업종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 단가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여성이면서 고령인 노동자만 활동지원사로 참여를 한다.’ 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복지지출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최종중장애인 특화 지

원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가산수당 및 차등수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보기좋은 발표 자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표를 잘 하시는 것 같았다.

1부가 끝나고 2부의 시작은 내 차례였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발표를 하려니 식은땀도 났고 두 팔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호흡을 하고 내 생각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강제 부여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많은 활동지원사가 여러 기관을 통해 나누어서 노동을 하고 있고 월 174시간이라는 제한을 비롯듯이 어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활동지원사는 의도하든 않든간에 긴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이용자는 충분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자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활동지원사만 해서 원하는 급여를 얻을 수 있도록 급여의 양을 현실적으로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 4분의 1 수준의 복지 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4배 더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다. 그 예산 안에서는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여러가지 제도와 활동지원사 급여 현실화를 이루고도 남는다.’ 결국 예산을 늘리라고 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생각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순서가 끝나고 다른 분들도 각자의 토론을 하였고 그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올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또다시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

무관의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와 노동정책의 개선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의견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각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잘 논의해 보겠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다. 역시나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어느 여성 장애인의 육아권에 대한 하소연부터 제공기관 담당자의 푸념, 어느 센터 활동가의 날카로운 질문 등등이 이어졌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였다.

내가 인상깊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24시간 지원을 왜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24시간을 국가에서 받긴 지자체에서 받긴 무슨 상관일까요?’라고 되물을 때 참 답답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한 마디 했다. ‘그럼 종종 장애인은 24시간 받으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도 없는 겁니까?’ 라고. 실제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제서야 그 담당자는 ‘아,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정말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맞나?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역시 투쟁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투쟁!!!

# 열사와 지속가능한 운동

## 박상빈

시민사회단체 근처에서 기웃거리기만 하다가  
노들장애인야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평생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들야학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이 정도 하면 “장애운동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 간략하게나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부끄럽게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운동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해방열사 배움터’라는 강렬한 제목의 강좌 공지를 봤습니다. 에너지에 이끌려 공지를 보자마자 신청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목처럼 장애해방을 위해 한 몸 다 바친 열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태일 열사, 세월호 등 다양한 운동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두 값진 내용이어서 매번 출석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과도 풍성하게 준비해주셔서 거의 10만 원 어치는 먹은 것 같네요.^^

웬지 소감문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열사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무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라 한 분을 꼽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을 적어보

겠습니다.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는데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등 활동가의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사로 삶을 마감하신 분들의 생활환경이 좀 더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태였으면 어땠을까요. 열사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다면 장애운동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활동가의 처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일은 정말 가슴 뛰고 가치가 있지만, 평생 업(業)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삶을 살 조건은 마련될까요?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짧고 굵게 불태우는 게 아닌, 지속해서 불꽃을 널리 퍼뜨리는 밑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불이 지퍼질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길 소망해봅니다.

[노들 책꽂이]

# <장애학의 도전>과 함께 장애학에 도전해 보자!

## 허신행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4년간 광야를 떠돌다 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12월부터 다시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신입 교사들이 100번 이상은 접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어떻게 하다가 노들야학에 오시게 되셨어요?”라는 질문 말이다. 2007년이였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지만 장애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나는 우연히 학교 앞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김도현의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였다. 무심코 잡은 얇고 가벼운 이 책은 나에게 엄청난 무게의 충격을 던져주었다.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자 소개에 보니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정책국장이라고 했다. 나는 전장연에 전화를 해서 자원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기보다는 노들야학에 연락을 해보라는 답을 주었다. 2007년 여름, 나는 노들야학에 자원활동 교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어 놓으리라 상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명확히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한다.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노들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노들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한편

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내 인생의 책을 쓴 김도현이 꼭 10년 만에 새 단행본을 내놓았다. 바로 <장애학의 도전>이다. “10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읽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 아니 문장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건 모두 이 책에 담았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으리라 직감했다. 누구보다도 그의 팬이라고 자처했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읽고 싶은 생각에 예약 구매를 했고, 배송을 받자마자 숨 쉴 틈 없이 통독했다.

역시 김도현이었다. ‘나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읽고 다른 사람은 이 책의 존재를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나만 아는 보석 같은 노래가 대중가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이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장애학의 도전>을 읽고 나면, 나 같은 장애인권교육 강사들의 얘기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조금은 섞여 있었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안 할 수는 없다. 평양냉면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30년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가. 장애학을 모르고 평생 살아갈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사실 <장애학의 도전>은 출간 20여일 만에 1쇄를 모두 소진하고 2쇄를 찍을 정도로 이미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애학의 도전>을 추천하고 싶은 주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쉽다. 단언컨대 장애학을 다루는 그 어떤 책보다 쉽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절대로 만만치 않다. 우생학, 동물해방론과 장애, 정의(正義), 비장애인중심주의, 자기결정권, 노동권 등 쉽지 않은 논의와 개념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쉽다. 사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애인운동을 해온 저자의 경험 때문일 수 있겠다.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써야 자신의 업적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경쟁하듯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 쏟아낸다. 하지만 20년 넘게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수련한 저자는 최대한 쉬운 언어로 상대방을 배려하려 노력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어려운 내용의 글을 읽지만 그의 친절함을 통해 쑥스러움이 사라지는 희열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흥미롭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애'의 '장'자도 잘 듣지 못한다. 장애인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나마 올해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보 습득의 창구가 늘기는 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든 대중매체를 통해서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이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점만 들어도 다행일 정도다.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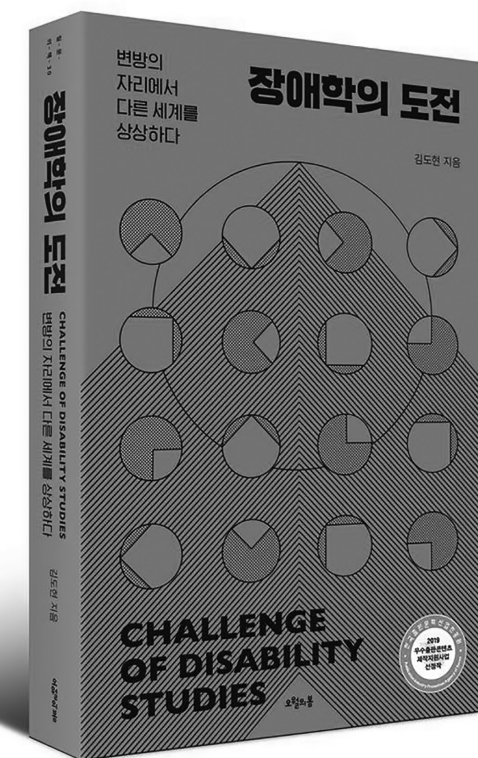
상황에서 김도현의 논의들은 다채롭다 못해 화려하다. 지적 호기심을 진하게 자극한다. '도대체 동물권이랑 장애가 무슨 상관이 있지?',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과 같은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다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노동권이 있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말이 되나?'와 같은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준다. 그의 논의는 비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일종의 매트릭스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임을 증명한다. 비장애인중심주의, 사회적 장애 모델 등의 핵심 코드로 장애와 비장애인 간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해 낸다.

셋째, 깊이 있다. 장애학에 대한 그의 소개는 바로 저자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장애학은 실천지향적이다. 저자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투쟁하는 활동가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장애인권운동에 투신했으며 지금도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학은 편파적이고 당파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는 이동권을, 교육권을, 자립생활의 권리를, 노동권을 외쳤다. 한결같이 장애인의 편에 있었다. 합리적·이성적이라는 표현은 비장애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교묘한 수사였다는 점을 끊임없이 고발했다. 이런 배경을 지닌 저자의 글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 익힌 이론이다. 깊이 있는 그의 글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읽고 나서도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김도현의 글은 진정성이 있다. 현장과 맞닿아있다. 써야 해서 기계처럼 써내려간 여느 보고서와는 다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동료의 억울함을 함께 겪고 이겨내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찡함을, 이 가슴 떨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느껴봤으면 좋겠다. 12년 전의 나에게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가 인생의 책이 되었듯이, 누군가에게 <장애학의 도전>이 인생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책을 읽고 노들야학에 지원했다는 자원활동가가 어서 나타나길 바라본다.

김도현의 글은 진정성이 있다.  
현장과 맞닿아있다.  
써야 해서 기계처럼 써내려간  
여느 보고서와는 다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동료의 억울함을 함께 겪고  
이겨내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찡함을, 이 가슴 떨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느껴봤으면 좋겠다.



1 인식개선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식을 개선해주는 주체와 개선을 받는 객체 사이의 권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교육 활동가들은 인식개선교육 대신에 장애인권교육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 <장애학의 도전> 저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이 꼭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김도현 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 읽던 중 <장애학의 도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장애학의 도전>이 너무 좋아서 도현 님이 앞서 쓰신 책들도 찾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와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아이의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꼭 '고쳐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요. 아이의 '다름'을 고쳐야 할 질병으로만 여겼지 장애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자폐증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이한테만 온 에너지를 쏟고도 (당연히) 자폐증을 치료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열두 살이 되어서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애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오

직 자폐증 치료나 자폐증과 관련된 책들만 보았지요.

<장애학의 도전>을 접하기 전 장애와 관련된 다른 책들을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여러 엄마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꾸렸지요. 한 책에서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자기 정체성과 '미적 영역'의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매력으로요. 이런 걸 '장애 자부심'이라고 하나보다, 나름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했기에,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발달장애의 전생애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도 해결되겠거니 싶었지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프라이드'를 세워주시는데, 발달장애에 대해선 사실 '나도 모르겠다!'여서 우리 엄마들끼리 책을 읽으며 웃었거든요. '거봐라, 다른 장애는 다 가능해도 발달장애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자조 섞인 웃음이었지요. 발달장애는 어디서든 열외구나 싶기도 하고, '알 수 없어 죄송해요'라는 저자의 솔직한 고백에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애학의 도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담 있지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 아이들 가르치면서 경험한 교육 현실, 아이 치료와 교육에 매달리면서 읽었던 책, 특수교육의 현실, 주위에서 주위들은 발달장애에 대한 온갖 정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 변화 등, 복잡하게 얽혀 걸돌던 수많은 지식들이 도현 님 책 한 권으로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명천지의 기분을 느끼게 된 거지요. 모든 문제를 파생시킨 핵심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절로 풀리는, 그 매듭 지점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책머리에서부터 “‘보는 자리[시좌]’(position of view)가 달라지면 풍경(landscape)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면서, 도현 님이 제가 선 자리를 스윙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엄마로서 제가 그동안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새롭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으로 <장애학의 도전>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주와 참고문헌, 심지어 찾아보기까지 훑치면서 읽었다면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짐작이 가실지요?^^ 그 다음 제가 환호한 지점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아니 심지어 중심에 두고 모든 장애 영역을 아우르는 '접속-성찰-전환-도전'의 장애 연구를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시시포스가 아닐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관점이 바뀌고 장애와 비장애를 횡단해 서로 연결되면 무거운 바위도 솜사탕이 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통 책을 읽고 후기를 쓸 때는 비판적인 얘기도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아직 <장애학의 도전>에 폭 빠져 있는 상태라 거기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어쨌거나 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도현 님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해서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 엄마가 이토록 열광하며 당신의 책을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이를 에너지 삼아 그 다음 도전을 또 시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요. 제 삶과 저희 아이에게 새로운 좌표를,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좌'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꼭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평택에서 김성희 드림



[노들은 사랑을 싣고]

## 야학에 파묻혀 지낸 20대 청춘, 이후

인터뷰\_야학 휴직교사 박여송 님

명학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명학** 안녕하세요. 박여송 님. 오늘의 만남은 <노들 바람>의 한 코너인 '노들은 사랑을 싣고'의 인터뷰를 위해서입니다. 이 코너는 야학 동문들을 만나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송 님. 저는 노들야학의 김명학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기록을 해주는 사람은 노들야학 김진수이구요. 자 그럼 여송 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여송** 하하하,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99년도인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 때 야학을 처음 왔어요. 정립회관에 있을 때지요. 학교 다니면서 야학에 갔었는데 다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띄엄띄엄 야학을 하다가, 아직까지도 퇴임을 못하고 휴직 중인 교사 박여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기타 에너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저는 에너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야학과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야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눈치보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서, 식사권을 보장해야겠다 싶어서인데요. 야학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그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퇴임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학 교사 중 아는 분들이 경석이형 말고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학** 야학에 언제 오셨고 야학을 오게 된 동기는 무

엇인가요?

**여송** 누구에게 소개받지는 않았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야학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나서 야학을 찾다가 노들야학을 웹상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누가 안내를 해줬어요. 김재경 교사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올라 왔는데 그렇게 먼 길을 올라오게 될 줄은 몰랐죠. 아차산이었죠. 그때 장애인 야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야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젊은 치기에 모르고 와보니 장애인 야학이었던 거죠.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을 했고 특별한 동기는 없었고 야학이라는 곳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는 것. 치기 어린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때 제 나이가 스물대여섯 정도 된 것 같아요.

**명학**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여송 님이 와서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말도 이렇게 뭐랄까 좀 그게 있잖아요. 박력 있게 꼭 지금 허신행 교사처럼 포부도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여송** 좋아했던 것은 모르겠고 술은 잘 먹었어요. 은영누나가 기억에 남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왜 놀랐냐고 물어보면 목소리가 커서 그랬다고. 그리고 맨날 술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명학** 그땐 술 먹는 것이 8할이었어요.

**여송** 8할이 아니라 9할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못 먹죠. 거의 날밤을 잤으니까 술을 먹고 2,3시 되면 거의 시체가 되거든요. 교

사 시체들이야 다 알아서 가는데 학생 시체들은... 하하 그러면 밑에서 술을 먹다가 정립회관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야 해서 그때는 전동휠체어도 없었고, 죽을 등 살 등 이동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붓고 차도 없었고 그 때 제가 와서 처음에 차 만들려고 근방의 교회와 절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성공 못했죠.

**명학** 기억이 나네요. 하하. 그러면 그 당시 야학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송** 뭐 하루하루가 인상에 남았어요. 기억에 남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장애인 이동권 한다고 해서 사당에 있는 지하철공사 앞에서 드러누웠을 때. 추워죽겠는데 경찰이 와서 치워줘야 하는데 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억. 그리고 종로에서 차 막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때도 경찰이 늦게 와서. 하하 그리고 나서 뒤풀이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함께 갔던 한 누나가 버스 탈 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버스 타본다고 했어요. 항상 그 티비로만 보다가.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명학** 그때는 바다도 처음 갔던 학생들이 있었고.

**여송** 생각해보니...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에바다 투쟁 한다고. 그때 저는 못 갔는데 교사들이 다쳐 오니까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어요. 현준이형이 거기 가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왔는데,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는데 오하려 저희를 피의자처럼 이야기를 해서 막 항의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에바다 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에바다뿐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투쟁하고 도망가다 다시 이순신 장군 동상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도현이랑 같이 했었네요. 여튼 그런 일이 있었지요.

**명학** 야학 활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송** 야학활동 그만둔 건 먹고살기 힘들어서 일하다 보니 그만두게 됐네요. 그만뒀다기보단 휴직을 했네요. 퇴임한다고 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사실 퇴임한다고 학생들이 잘 가라고 해주고 했는데 같이 술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명학** 자, 마지막으로 평상시 노들 외부에서 노들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여송** 기존에 야학을 했던 교사나 학생이나 그 사람들이 야학을 와서 응원해주고 같이 참여하고 계속 모든 일에 참여 할 수는 없겠지만 야학에 좋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도 있고 동문들과의 연락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야학이 계속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원을 해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동문인데 동문들에게 홍보라든가 연계. 일 년에 두 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들인의 밤이나 후원주점. 저는 그나마 야학에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제가 와도 아는 사람이 형 이외엔 별로 없다보니까.

**명학** 동문들이 서먹서먹해 해.



**여송** 맞아요. 저는 일 핑계로 와서 술 한잔하고 밥 먹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서먹서먹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다른 계기를 통해서 동문회의 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일 좋은 게 경조사지요. 동문들을 모을 수 있는 경조사가 있으면 와서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하하. 이젠 네트워크가 되니까. 보자고 해 놓고 못 보고 넘어갔던 동문들도 꽤 되고. 밖에서 어떤, 뭐랄까, 야학에서 옛날엔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있으니까 동문 초대의 밤이라든가. 동문초대의 술자리라든가. 이벤트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장애인문화예술관 초대권으로 해서 공연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계

기로 가족들끼리 서로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에 저희 딸들과 함께 야학에 왔었는데 교육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좋아졌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장애를 주제로 그림그리기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 동문들과 야학을 이어주는 뭔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학** 전에 시도를 한 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여송** 야학에서도 자기 일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야학에 다들 나름대로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있는 거지, 다들 애정



을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젊음을 야학에 거의 바쳤는데 진짜 그때 그, 거의 야학에 파묻혀서 20대의 청춘을 보냈는데 알바와 야학생활로 모든 것을. 그때는 휠체어 밀고 술 먹고 자고 그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교사들이 주변에 지원을 받으러 많이 다니고 저녁을 못 먹으니까 던킨 도넛에서 빵을 받아 왔는데 일주일 빵만 먹었더니 보기만 해도 속이 올라온 적도 있고. 야학에 사건사고가 워낙 많아서 버라이어티 했죠. 하루하루가. 맨날 경석이 형이야! 가져! 하면 경석이형 밀어서 경석이 형네 가면 어머니가 밥 차려 주시고 경석이 형네서 워크숍을 하기도 했고, 그때 사무실은 경석이 형 어머니가 집을 비워주셔서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랬죠. 술 먹고 해 보러 가자고 해서 전부 얼굴이 벌거서 해 보러 갔던 기억도 있네요. 하하

- 명학** 경석이가 인권상 받잖아.
- 여송** 경석이형이 많이 받아야 했죠. 여기 활동가들이 그런 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활동 하는 것에 비해서 외부로 알려지지 못한 게 많았죠. 이제는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덩치만 불리지 말고, 내실이라는 게 사실 뭐...
- 명학** 박경석 후를 준비를 해야지.
- 여송** 후임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애린이가 있구나. 애린이가 있네요. 하여튼 내실을 좀 다져서... 내실을 다지는 게 따로 있겠어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충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게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 여송 님과의 인터뷰는 그 시절 노들야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야기 중엔 제가 아는 이야기도 있었고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 같은 소망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그 소망이 여송 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동네 한 바퀴]  
**투쟁 현장 동지들 밥 챙기는 '십시일반 밥묵차'**  
밥묵차 대표 유희 님 인터뷰

조재범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자립생활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조재범 활동가입니다. 제가 노들의 구성원이 된 지도 벌써 6년이 되어가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노들의 구성원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들 가족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2019년 10월4일부터 5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스펀여섯 번째 '노란들판의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 뒤풀이를 담당했습니다. 이날 뒤풀이 지원은 '십시일반밥묵차'가 해주셨으며, '밥묵차'의 대표이신 유희 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우에 그쳤다는 듯이 어찌나 많은 동지들이 자리를 지키고 즐겁게 한잔을 하고 계시든지... 맘이 울적하며 찡찡했던 기억... 이번 후원주점 무자게 더운 주방에서 몇 분의 밥묵차 팀원들이 노들야학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몇 시간을 힘들다 안하고 애썼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6. 노들야학에 응원 한마디.**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많은 열사들을 보내고 또다시 전진하는 올 노들야학 동지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학습하는 동지들. 나는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늘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

십시일반밥묵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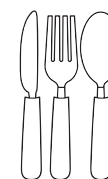
짓말이겠죠? 더운 여름 정말 죽자고 밥 나눴는데 승리한 동지들 현장에서 못 볼 때? 머 등등~^^

**4. 노들야학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딱히 언제라고... 모르겠는데. 투쟁의 선봉인 (제가 정말 자랑하고 다니는) 전장연의 투쟁에 늘 같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들야학을 알게 되었죠. 그옛날 굴욕적인 장애인들의 삶이었다면... 땀땀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노들야학의 동지들이 너무 멋집니다.

**5. 노들야학과의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후원주점 할 때에 왜 그리 비가 오던지... 그런데... 걱정하며 왔던 노들야학 건물 주차장은 저의 생각이 기



**1. 본인 소개 및 단체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 전 수석부회장이었구요. 몇 십년 꾸준히 빈민활동도 했어요. 현재는 십시일반 밥묵차 대표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곳 힘든 노동자들에게 밥은 하늘이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2. 밥묵차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노련 연사국장 때, 최정환 열사 때문가요? 열사가 분신하고 영안실에 천여명의 동지들이 모였는데 음식을 대접하려니 돈도 없고. 그냥 직접 해보자, 굶길 수는 없으니. 큰술에다 국 끓여 밥해서 나눴죠. 그후로 이덕인 열사 때에도. 그리고 밥을 먹어야 투쟁도 할 수 있

고... 독거 어르신들, 노숙인분들도 나누고... 그냥 어찌 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밥차는 노동자.시민.동지.가족들의 모금으로 2016년도에 만들어져 4년째 운영하고 있구요. 아들들이 후원하고, 동지들이 후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늘 곁에서 배식과 운전해주는 김기수 동지가 있으니 가능하기도 하구요.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밥 나눔은 이어가려 합니다.

**3. 보람있을 때와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늘 밥 나갈 때 맛나다고 집밥이었나구 물으며.. 환하게 웃어 줄 때? 나도 사람이니 힘들지 않는다 하면 거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현장에서 자주 보였어요! 록밴드 '허클베리핀'

“ [#노들바람\_고마운 후원인] 허클베리 핀 인터뷰(12.16)  
이기용(기타, 코러스), 이소영(보컬, 신스), 성장규(기타, 신스, 드럼, 프로그래밍) 님과  
명희(노들야학)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 제공 허클베리핀



명희

현장에서 자주 보였어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집회에서 보였던 것은 거의 10년 전 보신각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가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만남, 찾아와주신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기용

장애인관련사안으로는 늘 관심이 많았어요. 광화문지하역사에서 농성할 때에도 일부러 가서 서명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밴드활동으로 말고 따로 가기도 하였고. 노들야학도 오며가며 들은 적이 있어서 매년 정기 콘서트를 할 때 연락을 드렸죠. 길게 보고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영

처음 만났던 보신각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슈가 장애인이동권에 관한 슬로건도 있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사회적인 요구를 담은 집회에 공연을 하러 가면 무슨 말을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요. 멘트를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아요. 현장에서 집회에 저희가 음악으로 동참하여 힘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전장연 집회말고는 노동자 투쟁 영역의 집회 등에도 자주 갔는데요. 불러주시면 먼저 일정이 잡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함께 하는 편이지요.

명희

최근 가장 많이 섭외드리는 강연이나 공연의 경우에 슬로건으로는 장애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에 관한 사안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장애인도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방대하고 슬로건만으로

는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담은 집회시위 현장 속에서 공연을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장규

공연을 하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요구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필요한 요구들이나 것은 알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은 좋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니까요.

기용

주로 저희 밴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컬이 소개 및 멘트를 할 때가 많아요. 보컬이 가지는 역할로서 밴드 대표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밴드 내에서도 습관적으로 공연만 하러 가면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연가기 전에 우리끼리 함께 하는 곳이 어떤 집회의 내용이고 포인트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연을 가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만 한다는 것은 서로가 공허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건 좋은 연주가 안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파티에 갔을 때도 개최의 목적 같은, 가령 누구의 생일이고 어떤 컨셉의 행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대학로에서 5층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후, <함께걸음>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요. 그때 저희 밴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했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매번 그럴 순 없지만 할 수 있다면 함께 애를 쓰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요구들이 내 자신이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1개를 더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이 당연히 하는 것을 누군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야한다고 봐요. 그 마음들을 잘 알아야 하는거죠. 저는 그리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음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명희

저희가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장애와 관

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료와 강의는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소영

작년에 대학로에서 전장연이 입주를 할 때 짬(노들야학 후원마당 행사 날) 저희가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몸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연락을 먼저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른건 못

말기겠는지, 꼭 노래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장규

서빙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었던 의미였는데 그럼에도 노래요청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재능이 없어 보이나요?  
(명희: 서빙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명희

전장연 활동 말고 다른 연대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이 있나요?

기용

세월호, 콜트콜텍의 싸움에도 함께 했구요. 그리고 지금은 복직이 되었던 쌍용자동차 하고 투쟁에도 함께 했었죠. 어디에 누군가 굴뚝에 올라간다고 하면 꼭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은 락 밴드다 보니까, 불러주시는 현장에서 큰 규모의 집회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불러주세요. 큰 힘을 모아야 할 때이겠죠. 그런 외부 요청이 있으면 거절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명희

연대해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 혹은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기용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배부른 싸움이 아니잖아요. 절박한 외침들이죠. 생존권, 이동권 등을 요구하는 기본에 대한 싸움들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도 생각해요. 작게는 서명이라도 하고 모금에도 동참을 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밴드이니 음악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장규** 질문하고 조금은 빗겨나갈 수도 있는데요. 연말마다 하는 정기공연을 초대드리고 있어요. 올해에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무대 앞에서 환호하는 장애인당사자분들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동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똑같은 농성을 해도 휠체어를 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과 접근부터 다른 고민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사회적으로 불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집회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가 관계 맺는 면적을 늘리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라도요.

**소영** 2004년에 처음에 1회 허클베리핀 정기공연인 옐로우 콘서트를 대학로에서 했었어요. 그때 소속사가 없이 저희끼리 기획하고 준비했죠. 그때 처음으로 장애인 당사자분에게 공연

장이 출입을 할 수 있겠는지 대한 문의가 왔어요. 그때는 저희도 무지했고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죠. 머리를 땀, 맞은 것처럼 부랴부랴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연장에 접근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과 당일 행사장에서 화장실, 출입구, 공연장 내 휠체어 좌석 등에 대한 안내도 어떻게 하면 될지 등에 대해 고민을 확장하여 하고 있어요.

**명희** 야학에서 공연에 초대 받아 휠체어를 탄 학생/교사 분들과 막상 행사장을 가보면 입구부터가 계단이 있다거나 하는 곳들이 많아요.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고 해야 그런 고민의 시야가 넓어지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많아요. 실상 노들야학 근처에 밥을 먹을 곳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 가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어요.

**기용** 야학의 수업은 무엇이 있나요?

**명희** 학교형태의 장애인야학이다 보니, 기존의 교과목(국어,영어,수학,과학,등의) 지체,뇌병변장애, 발달장애인 학생분들이 주로 학생들로 있는 저녁수업과 발달장애인 분들만 함께 문화예술활동으로 하는 낮수업이 있어요. 26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저녁수업의 경우에는 점점 사회적인 욕구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어 사회수업은 장애학, 철학, 시사를 다루기도 합니다. 저녁 수업 중에 특별활동 수업으로 노들음악대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야마가타 트윅스터(님)이 오셔서 함께 하고 있어요. 일명 테크노 전사들이라고 불리우죠. 기존의 음악들

을 edm버전으로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허클베리핀 분들도 음악대 수업에도 놀러오세요 :) 혹시 허클베리핀 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연대”활동을 하게 된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기용** 어릴 때 집이 철거 당하는 것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죠. 투쟁의 현장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기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이 간 이유이지 않은가 싶네요.

**소영** 언론사 <시사저널>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공연으로 참석했을 때 현장의 사안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함께 공연을 했던 곳이 이후에 어떤 방안이 생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해결된다는 것이 부듯하고 계속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계속 보면 공연으로 연대하면서도 힘든 마음의 짐처럼 답답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면 부듯하기도 하죠.

**장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한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음도 가고요. 뉴스 보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으로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도 있었던 것들을 직접 움직여 실행해 나가는 것이 큰 것 같아요. 궁극에는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영

투쟁이 장기화되어 거리의 생활이 오래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연을 통해 함께 즐기고 잠깐이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죠.

명희

앞으로 계속 오래 볼 테니까요,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클베리핀 멤버분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용

허클베리핀으로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가야하는 길에서 중간쯤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밴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겠죠. 뭐가 필요한지 크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할 겁니다. 큰 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치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더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장애인운동과 연결해서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후에 함께 연락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장규

개인의 계획이 밴드의 계획이에요. 다음 앨범이 중요합니다. 내년은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기용

네이버에 오디오 클립에서 매주 한 편씩 영시를 들려드리는 [영시액츄얼리]와 음악이야기를 전해주어드리는 [뮤직액츄얼리] 팟캐스트 채널을 두 개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인 책으로 [아무튼, 기타]라는 책이 한 달 정도 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멤버들과 북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경희 강남훈 강명 강미자 강미진 강미희 강병완 강복현 강성운 강수혜 강순애 강영미 강용원 강유선 강윤석 강은실 강주성 강지원 강현옥 강혜민 강희관 강희연 경석현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순 고명희 고병권 고선희 고수진 고승현 고아라 고재현 고정화 고제현 고주영 고학수 고혜숙 고혜순 공대식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공호신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만순 구민재 구세나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두섭 권미경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오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지은 권진영 권태국 권한기 권혁은 권현기 권혜선 금교영 길성삼 김가경 김가륜 김건국 김건형 김경남 김경란 김경은 김경자 김경탁 김경혜 김경희 김계숙 김관선 김관희 김광국 김광란 김규태 김국식 김금례 김금순 김금정 김기룡 김기오 김남수 김남희 김누리 김대희 김덕중 김도경 김도현 김동림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란희 김명숙 김명학 김명화 김문옥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주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호 김민희 김범강 김범순 김범식 김보경 김보라미 김보람 김보민 김보영 김보현 김봉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원 김상현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선희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세영 김소명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환 김숙이 김순남 김순영 김순조 김승혜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애숙 김연성 김연수 김연정 김연지 김연희 김연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승 김영옥 김영자 김영현 김영희 김옥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태 김우경 김원빈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경 김윤자 김윤진 김은미 김은솔 김은아 김은정 김은희 김이종 김이준수 김인숙 김장기 김재경 김재양 김정미 김정민 김정숙 김정은 김정애 김정희 김지환 김진수 김진수 김진우 김진의 김창배 김창우 김철순 김춘우 김탄진 김태민 김태수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규 김푸른솔 김필순 김한민 김한솔 김한준 김현경 김현영 김현식 김현심 김현영 김현주 김현희 김형근 김형배 김형호 김혜경 김혜옥 김혜안 김혜진 김호세아 김호진 김홍구 김후남 김희정 김희찬 나기환 나선영 나정숙 나혜니 남대호 남두형 남정민 남지현 남효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명보명 모경훈 문건화 문경애 문경희 문병준 문상빈 문상태 문선경 문성원 문소리 문숙자 문은영 문지의 문희정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길자 박남주 박대수 박란희 박명숙 박모래 박미영 박민경 박민순 박민영 박보경 박상빈 박상일 박상우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에 박선은 박성운 박성희 박세단 박세준 박세호 박소연 박승이 박수진 박승원 박시백 박시형 박애경 박양미 박연희 박영란 박영민 박영환 박옥숙 박은솔 박완선 박완신 박용대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정 박이향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정주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종화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지윤 박진우 박진우 박찬연 박재영 박찬수 박철우 박하수 박현희 박혜수 박효경 박홍석 박희용 반영신 방미숙 방정순 방지원 배경원 배문섭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배치녀 백미라 백상현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윤희 백재선 서남교 서남례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민정 서유나 서은수 서은하 서정분 서정운 서주형 서찬욱 석용래 석유원 석지윤 선우대룡 선혜란 성서연 성정현 성창기 소현미 손병갑 손석철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자경 손정수 손제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경례 송미영 송상훈 송은영 송종호 송주훈 송준섭 송창국 송현정 신다름 신미숙 신복순 신봉준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안수 신연실 신원정 신원경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신혜정 신화정 신희숙 심귀황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구 안경모 안경희 안남희 안문필 안민영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연 안에스더 안연주 안영준 안재호 안정원 안종녀 안중선 안지영 안향미 안휘민 안희옥 양석주 양수경 양윤근 양인순 양현준 양혜영 어수진 엄재균 연수진 연용분 연호준 예해연 오미영 오보람 오상민 오원주 오원주 오은영 오정자 오정희 오중희 오지은 오현숙 옥샘 우영선 우인숙 원명재 원민희 원성훈 유기훈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성민 유소정 유영순 유유빈 유윤영 유주영 유창재 유춘식 유현자 윤경호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명순 윤미라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일 윤준서 윤현숙 윤호진 윤희 이가연 이강수 이건학 이건호 이건희 이경덕 이경숙 이경아 이경옥 이경운 이경윤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군자 이근희 이금옥 이금주 이금희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난경 이동진 이라라 이리나 이명진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미경 이미리람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민숙 이법민 이병준 이비할 이상릴 이상우 이상준 이서윤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연 이성옥 이성호 이소정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순덕 이순웅 이순자 이승덕 이승현 이일찬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들판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영애 이우현 이원진 이유경 이유미 이유민 이유진 이윤경 이윤옥 이윤지 이은미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인영 이장우 이재령 이재승 이정란 이정민 이정숙 이정실 이정옥 이정은 이정하 이정희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민 이종숙 이종실 이종은 이종현 이종현 이주오 이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창열 이창희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우 이현욱 이현정 이현진 이혜미 이호연 이호입 이호준 이화영 이화자 이효정 이효진 임경희 임나미 임등근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영희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종익 임주현 임지영 임채원 임향연 장경근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욱란 장원 장은경 장정아 장정환 장제환 장춘환 장혜미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영록 전영선 전우석 전옥 전윤경 전은주 전준규 전진숙 전형진 정귀선 정규명 정다운 정대수 정민구 정상엽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룡 정성철 정승이 정승희 정아성 정연숙 정영란 정영만 정영석 정영희 정용균 정용화 정용훈 정우중 정우준 정은영 정유진 정은경 정은영 정이성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근 정중화 정지민 정지영 정지윤 정지혜 정진아 정진영 정진희 정창조 정태영 정태원 정택용 정현강 정현아 정현진 정혜령 정혜림 정혜신 정혜영 정호준 정호란 정훈 정희진 제갈진숙 조경애 조규남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사랑 조상지 조성진 조소현 조수안 조영재 조윤경 조윤실 조은별 조은주 조용현 조지연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주현철 지덕근 지세진 지혜름 진도인 진수미 진영옥 진영민 진태원 진태관 차민경 차순정 차연화 차한비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최경미 최귀선 최귀수 최기상 최동호 최문아 최미란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욱 최승우 최승훈 최안순 최영석 최영은 최영진 최영자 최영하 최우영 최윤정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종철 최주형 최진영 최찬일 최한별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탁영희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인숙 하인혜 하정자 한경훈 한남희 한동승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선희 한성희 한승희 한은경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달주 허보영 허소아 허숙자 허순인 허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준영 허진태 허창 허현덕 허효재 홍도순 홍명희 홍석현 홍성원 홍성호 홍세미 홍순희 홍영선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홍혜리 황무초(무명) 황보솔 황성윤 황승미 황연국 황인현 황정희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강귀화 강수혜 김가연 김경애 김대경 김미선 김보라 김선심 김선아 김수진 김용철 김태형 김필순 남완승 더머덤 박경석 박누리 박형훈 반옥 서금석 서은수 성희선 손소영 손장희 송창동 신동길 신승미 신희수 심희준 안성희 안애스더 예수고난회후원 오선례 오선실 오선에 원민희 유동훈 윤지형 이미리엄 이정혁 이한진 이현숙 이효상 재)아름다운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조광배 조상지 주식회사티에이 차명수 착한콜위드 고 최다솜 한살림펀딩 한영필 한예인 허병권 홍승희 황미향 황재숙 후원합니다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09월 • 인삼 6팩 **이형록** / 추석떡 **인강원** / 과일 **소니아**
- 10월 • 쌀 60kg **한살림** / 대만과자 **최종철** / 옷 4box **이미경** / 전직작품 엽서들 **김준영** / 감귤 1box **엠마누엘 사누** / 여주쌀 28kg, 고구마 1box **여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오메기떡 40알 **김남욱** / 청진기 **유기훈** / 쌀 20kg **승인교회**
- 11월 • 쌀 180kg **한살림** / 빵 **대구직업체험학생** / 굴 **최근정** / 소방소수간, 투척소화기 **리슨투더씨티** / 모자 3상자 **라이프라인 김동훈** / 박카스 2box **이상용** / 배도라 지즙 2상자 **크리에이티브 다다** / 오로나민 1박스 **김진우** / 굴 1박스 **임당부모님**
- 12월 • 김치 10kg **꿀잠** / 쌀 120kg **한살림** / 굴 2box **임당부모님** / 굴 2box **삼달다방** / 굴 1box **이주여성센터** / 자유시간 1봉지 **김명선** / 백설기 100개 **김나라**



노들판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들판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들판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들판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들판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ci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이 사회가,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엄한 존재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는가?' 라고 말이다.

**장애학의 도전**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김도현 지음, 2019, 오월의봄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